

2022



#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포럼 및 비전선포식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함께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중구!

일시 2022.9.21.(수) 14:00~16:30

장소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



인천광역시

<http://www.icjg.go.kr>

중구



## □ 진행 순서 □

구 분	시 간(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 공연	14:00 ~ 14:15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영미 : 아름다운 나라</li> <li>• 윤규섭 : 뱃노래</li> <li>• 듀엣 :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li> </ul>		• 중구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 회 식	14:15 ~ 14:30	15분	개회식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 행사 및 내빈소개	• 사회자
				• 환영사	• 구청장
				• 축 사	• 구의장, 시교육감
비 전 선 포 식	14:30 ~ 14:35	5분	• 축하 및 응원영상 시청		
	14:35 ~ 14:55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학습도시선언문 낭독 및 비전선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언문 낭독 :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 및 강사</li> <li>• 비전선포 : 다함께</li> </ul>
평 생 교육포럼	14:55 ~ 15:00	5분	• 평생교육 관련 홍보영상 시청		
	15:00 ~ 16:30	9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럼주제 : 중년평생교육전망과 사회참여활동</li> <li>•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 김태정 시교육청 팀장</li> <li>• 발제 : 심성보 부산교대 명예교수</li> <li>• 패널 : 인천연구원 배은주박사 외 3명</li> </ul>
	16:30	-	• 폐 회		





# Contents

2022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포럼

## ▣ 발 제

-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 9  
심 성 보 /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 ▣ 토 론

1.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 31  
김 형 수 / 인천일보 논설주간
2. 중장년을 위한 전환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어떤 요구가 있는가? ..... 39  
김 명 랑 /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3. 중구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기대하며 ..... 47  
배 은 주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4.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 53  
허 은 숙 /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 사업전략팀장





## ▣ 포럼참석자 소개 ▣

### » 좌 장 : 김태정

인천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공동체팀장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보좌관  
前 서울 양천구청 교육정책보좌관

### » 발제자 :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 » 토론자 : 김형수

인천광역시중구평생교육협의회 부의장  
인천일보 논설주간  
前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 » 토론자 : 김명랑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前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前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연구교수

### » 토론자 : 배은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한국교육인류학회 총무이사(부회장)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 위원  
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튜터

### » 토론자 : 허은숙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 사업전략팀장  
前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 교육상담팀장  
前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부캠퍼스 운영사업팀장 겸임  
前 (주)LG CNS Learning& Development 센터 부장 대외교육팀 근무  
前 (주)LG CNS 경영기술교육원 Smart Learning Platform 구축 총괄 PM





## 발 제

1

### 심 성 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심 성 보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장)

1. 현대 학교체제의 공헌과 한계
2. 한국 평생교육의 위기
3. 학습사회의 도래
4. 평생학습의 지향
5. 평생학습의 다양한 현장
6.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중장년 평생교육과 사회참여활동

### 1. 현대 학교체제의 공헌과 한계

#### ■ 학교의 발명과 확대

- ▼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교육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확장
- ▼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압축하여 짧은 시간에 후세대에 전승하여 역사와 전통을 계승

#### ■ 학교의 한계

- ▼ 관계(친밀감, 유대감, 상호책임과 헌신)의 단절
- ▼ 지식(앎)과 삶(실천)의 괴리: 학교와 지역사회의 분리, 학습자(인식 주체)와 학습 주제(대상)의 분리
- ▼ 적성과 진로 탐색의 어려움

-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적 격차도 심화됨에 따라 현재의 경직된 학교체제만으로는 교육 문제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학업 위주의 획일적이고 서열화된 학교 중심의 경쟁적 교육체제로부터 삶에 기초한 일과 학습이 선-순환하는 포용적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 2.

## 한국 평생교육의 위기

-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각종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처세술, 자기계발, 심성훈련, 건강보전, 체력운동, 경제지식, 재산관리 등에 대한 강좌가 아주 많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쇼핑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 프로그램들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개인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며, 공동체적이지 못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도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두의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사회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의 공간이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을 주고 별이 들게 보살펴야 하지만, 적절하게 가지를 쳐내는 절제도 필요하다. 프로그램도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사비에 의존하는 평생교육을 넘어 공비로 누구나 수강하고자 할 때,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체제에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폭증에 대응해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해야 하고, 이에 대응하려면 평생학습에 관한 더 많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 **평생교육** 또는 **평생학습**은 오래된 아이디어의 새로운 의미 발견이다. 그렇기에 이미 밝혀지고 드러난 현상 ‘저 너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신세계 미답지’를 찾아나서야 한다(최운실, 2019). 친숙한 것들에 대한 조금은 ‘**낯설게 보기**’, ‘**새롭게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가 시민 중심의 학습을 위한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학습지역사회’의 구체적 운영방식으로 ‘학습도시’, ‘학습지역’, ‘교육도시’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평생학습도시**도 꾸준히 늘어나고, 평생학습시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한국의 평생교육은 국가의 관련 재정 규모 면에서도, 내용에서도 교육 선진국의 평생교육에 비해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효율성’ 위주로 강조된 전통적 평생학습정책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과성, 일관성, 책무성, 유연성, 합의성을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체제로 대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이 아직 시민성 교육 및 시민적 학습으로서의 위상이 미약하다. 그래서 ‘**공적 시민**’을 길러 내지 못하고 있다.
- 국가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사회정의라는 시대정신을 교육 부문에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습 약자(저학력 성인과 노인층,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 3.

## 학습사회의 도래

- 인류는 교육활동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문명의 진보**를 이끌어왔다. 문명이 진보할수록 생활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졌으며, 그만큼 가르쳐야 할 지식·기술·가치관 또한 증가했다. 그에 따라 교육활동도 확대·발전했다. 교육은 문명을 진보시키고, 진보된 문명은 다시 교육의 확대를 이끌고, 확대된 교육은 다시 문명 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문명의 확대 재생산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류는 이제까지 그렇게 발전해왔다.
- ▼ 그런데 “기술적 진보에 비례할 만큼 도덕적 진보가 따르지 못했다.”(한스 요나스). 그래서 인류의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였다. 전자산업의 발달 등 기술적 문명의 달성과 함께 이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자연의 파괴, 그리고 공동체 파괴와 비인간화 등 야만의 문화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코로나 펜데믹, 기후 및 생태 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성공은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져왔다. 한강의 기적과 함께 4대강의 오염을 초래하였다.
- 오늘날 사회가 급속하게 변동하고 있다. 근대화의 근대화, 계몽의 계몽 등 성찰적 근대화, 제 2의 근대화 등 ‘대안적 현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의 흐름 속에서 포용과 혁신을 기조로 교육체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체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학교가 불어넣은 입시 욕망의 엔진을 잠시 멈추고, 학교가 만든 습관과 체계, 그리고 관계와 품성을 살펴보자는 거다. ‘평생’이라는 말을 학습 앞에 붙인 이유는, 교육이라는 말만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평생이라는 말을 붙이면, 부모와 조부모까지 ‘학습자’로 볼 수 있다.
- ▼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자신의 깨달음의 과정이고, 깨달음을 느껴야 학습 결과가 자기 것이 된다. 마음속에서 “아하!, 그렇구나!” 하는 느낌이 터져 나올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 ▼ 평생학습은 모르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서 나아가 습득한 것을 다시 배우는 일에 관심을 둔다. 일반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자신이 몰랐던 지식이나 기술을 ‘접하는(學)’ 일을 말하며, ‘**배움**’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혀야(習)’ 마무리된다.
- ⇒ 배움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의 이동이다. 그래서 학교에 갇힌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열린 배움 개념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즉 일생에 걸친 배움을 잘 꾸리려면 배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서 배워야 한다.
- ‘**실천 없이는 앎도 없다**’(Freire, 2006). 때로는 앎을 위해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은 본질적으로 이론이 아니다. 실천은 이론을 창조하지만, 실천 그 자체가 이론은 아니다. 성찰의 결과에 따른 실천은 새로운 배움을 위해 필수적이다. 배움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평생**’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겨냥하기 때문에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인 서민/민중의 삶과 일정한 거리감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넘어서지 않으면 개인주의적 고립이나 각자도생을 면치 못할 것이다.
  - ▼ 역설적이지만, 인간은 고난 속에서 가장 잘 배우며, 배움을 통해서만 인간은 성숙한 존재가 된다. 평생 배우며 산다는 건, 세상을 우리 내부로 들여놓고, 자신을 세상에 내어놓는 일을 해 나가는 걸 말한다.
  - ▼ **학습**은 학습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로 대변되는 개인의 정체성 변화와 개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 개인들이 구성하는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온다.
- 지식(삶)의 급속한 성장은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출현시켰다. 사회적·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학습사회는 사회의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학습도시(learning city)**’의 이상이 제창되고 있다.
- ‘**학습사회**’의 이념은 특정 유형의 사회적 제도가 다른 것들보다 평생학습을 촉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학습사회의 이상은 시간이 흐름면서 의사소통과 성찰 그리고 상호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재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 ‘**학습사회**’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이의 통합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인적 자본**은 개별적 행위자(개별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와 관계성(공동체의 자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적 자본**은 경제적 합리성과 정보의 투명성을 가정한 반면,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렌즈(공동체)를 통해 이해한다. **인적 자본**은 교육의 기간 또는 자격화와 수량을 기준으로 투입량을 측정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상호 의무와 시민 참여의 힘을 통해 측정한다. **인적 자본**이 개인의 수입이나 생산 수준의 차원에서 결과를 측정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한다(Schuller & Field, 2002: 81).
  - ▼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서로 적대적 경향이 있는데, 양분된 대립적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는 **인적 자본의 확장 또는 사회적 자본의 쇠퇴**로 볼 수도 있다. 즉 양자의 차이를 극대화하기보다는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 없는 사회나 사회 없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안적이고 경쟁적 지표의 집합으로 보기보다 가장 좁은 자격화 중심에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지표 집합에 이르기까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중첩적 집합**’으로 볼 필요가 있다(Schuller & Field, 2002: 86). 한편으로는 특수성과 초점에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맥락화와 범위에 맞추는 것 사이에 **절충**이 있을 수 있다. 중첩적 구조의 구축은 한편으로 인적 자본 접근 방식의 양적 허위성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자본의 지나치게 포괄적인 모호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sup>1)</sup>

1) 최근에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민주적 자본, 의사소통 자본이 추가된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이 제창되고 있다.

- 오늘날 **학습사회의 이념**으로 ‘일을 위한 학습’, ‘시민성을 위한 학습’,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이라는 핵심적 목적이 등장한다(Ranson, 1998).
  - ⇒ **일의 세계를 위한 학습사회**는 피고용인을 더 큰 다양한 직업적 과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일의 세계를 위한 학습사회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이용, 노동 강화 산업의 저임금 경제로의 재배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 국제경쟁의 강화, 시간제 일자리 증대, 간헐적 고용 등을 포함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 변형되고 있다.
  - ⇒ **시민성을 위한 학습사회**는 일을 위한 기술에만 초점을 두는 학습사회의 협소한 개념을 확장시킨다. 평생학습의 지향성은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 참여의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에 중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Johnston, 2014: 18). 이것은 사회변화를 위한 시민적 평생학습, 즉 신-사회운동 접근을 요청한다(Jarvis, 2011: 16-17). 이것은 직업적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공유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삶의 질을 포함한다. 일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일을 규정하는, 즉 경제적 성장의 사회적 조건을 규정하는 사회적·문화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
  - ⇒ **민주주의를 위한 학습사회**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변혁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적·사회적 목적의 활력화 의식을 이끌어내는 학습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으로부터 학습사회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놓고, 관점을 표현하고 경청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딜레마에 대한 해결을 탐구하고, 그리고 변화의 실천에 공동으로 작동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4.

### 평생교육의 지향

- ‘평생교육’은 1990년대 중반부터 ‘평생학습’으로 교체되면서 패러다임 전환을 보이고 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교육의 학습화’**는 ‘평생학습’으로의 이동을 말해준다. 가르침(teaching)에서 학습(learning)으로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 ‘평생학습’으로 불리고 있는 것도 ‘교육주의’에서 ‘학습주의’로 패러다임이 전환한 것과 맞물려 있다.
  - ▼ 학습자는 왜 배우려고 하는가? 배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습자가 계속 학습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평생교육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교육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 ▼ 학습은 학습자가 실제로 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관한 심오한 이해를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 학습은 일반적으로 지식의 양적 증가와 많은 지식의 습득, 기억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 필요에 따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실과 기술 및 방법을 습득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 ▼ 학습은 삶의 지속적인 과정이다. 학습이란 동등한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학습은 '생각하기'와 어울려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얻는 게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논어』).
- ▼ 학습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던질 때 시작된다. 학습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저마다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더 나아가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습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제한될 수 없고, 비판적 성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듯이 작동되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의 일상화가 진정한 배움의 길로 가는 길이다.
- ▼ 학습은 개인 및 사회의 변화를 포함한다. 학습은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적·사회적 조응을 하도록 한다. 경험의 결과로서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학습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개인의 변화이며, 이는 필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학습은 인간의 성향이나 역량의 변화로 유지될 수 있다.
- 학습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개입하도록 촉구하기도 한다. 학습은 의식의 비판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과정이다. 학습(배움) 활동은 세계에 대한 태도, 즉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학습은 일종의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 교육은 눈에 맞는 안경을 주는 일이다.
- ▼ 그런데 성인교육의 차원에서는 '학습주의'가 타당성을 갖지만, 미성숙 단계의 아이들을 다루는 학교교육이나 발달단계 측면에서 학습자의 욕구와 흥미를 중시하는 '학습주의'가 인류 문화의 유산을 전달하는 '가르침'의 역할을 전제하지 않으면, '방법주의'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 가르침과 배움으로 이루어진 교육이란 학습을 전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껴안고 또 넘어서는 교육, 즉 '학습을 넘어선(post-learning)' 평생교육을 지향해야 한다(Biesta, 2022). 교육주의(가르침주의)와 학습주의(배움주의)의 극단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변증법적(대화적) 관계를 요구한다.
- 평생학습운동은 지구적 자본이 낳은 습관적 착취가 개개인의 내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마음의 파수꾼이며 방패이기도 하다. 교육 소비자나 학습 상품, 자기계발 등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차단막을 치는 반-학습(un-learning) 운동의 지향성도 갖는다. 평생학습운동은 좋은 행동의 규범, 가치, 기준을 주입해서 좋은 시민이 되게 하는 기존 질서의 재생산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 ▼ 하지만 반-사회화/반-학습을 넘어 '주체화'로 나아가는 평생학습운동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주체화는 서로 의존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주체성을 갖는 일이다. 주체화를 위한 평생학습은 과거의 재생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 ▼ 민주적 실천을 위해 기존 질서에 적응시키는 사회화 차원의 학습이 아니라, 주체화 차원의 학습을 염두에 두면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Biesta, 2011, 2014; Vandenbroeck & Peeters, 2014).



- ⇨ 위험사회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공동체의 개념을 불러내고 운영함으로써 교육자들은 교육에 대한 개별화/개인주의와 공동체/집단주의, 정체성/동질성과 차이/다양성의 서로 다른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한다.
- 가르침(교육자)과 배움(학습자)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관계에는 무엇(특정 체계를 가진 목표와 내용), 왜(어떤 의미를 가진 일관된 목적과 올바름), 어떻게(다양한 태도, 성향, 실천)가 관여되어 있다(Hogan, 2004: 30). 좋은 배움은 좋은 가르침에서 나온다. 모든 학습자가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학습을 하고, 더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들을 찾아서 붙잡아두어야 한다.
- **평생학습**(앎을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 실천을 위한 학습learning to do + 더불어 사는 학습learnig to live together +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의 내 기둥은 권력-지식-담론의 복합체적 차원에서 볼 경우, 기존의 학습 지향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특징이 드러난다.
- ▼ ‘**앎**’과 ‘**실천**’의 기둥은 기존 교육에서도 자주 논의되던 영역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수행성을 보장하는 배움은 평생학습사회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실천에 대해 사유하고, 사유한 내용을 다시 삶터에서 조회하고 이를 반복하면서 이 과정 자체에 대해 교육적으로 사유하는 ‘**이론적 실천(praxis)**’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론적 실천과 실천적 이론이 동시에 발동되어야 한다.
- ⇨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메꿈’**이 필요하다. 전환기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의 새판 짜기**’가 더욱 절실하다. 현장이 선행하고 이론이 뒷받치며 후행하는 역조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물론 역으로 이론이 현장을 압도하여 현실(사실)을 왜곡하여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기도 안 된다. 그래서 idealism과 realism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기존 학습에서는 학습내용으로 간주되지 않던 영역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존재하기를 위한 배움**’의 기둥은 학습내용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하는 학습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삶의 학습을 위한 실존철학적 물음이고 공동체교육의 요청이기도 하다.
- 교육은 생활 전반과 평생에 걸친 것이다. **개인**은 ‘**매일의 삶**’, 즉 일상 속에서 거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력의 주체이기도 하다. 일상의 어떤 장면에서도 권력은 어디론가 흐른다. 가정에서도, 친구끼리도, 직장에서도 권력은 생성되고 부딪히고 흘러간다. 말하는 내용에도, 말하는 방식에도, 태도에도, 습관에도 권력이 스며있다. 그래서 권력은 일상 속에서 작동하고, 삶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정민승, 2020: 68).
- ▼ **일상**은 습관적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매 순간 투쟁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일상**이 서로 경합하고 타협하며 쟁투를 벌이는 공간이라면, 가르침과 배움을 둘러싼 의미 다툼 역시 중요한 권력 작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 **재생산**이 기존 체제의 복제라면, **변혁**은 새로운 삶의 문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을 구성해가는 개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평생학습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다.
-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내가 욕망하는 바를 확인하고 건강한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평생학습의 새로운 맥락을 만드는 활동이다.
- 시민이 수동적 교육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학습자로 활동하는 새로운 경향이 퍼지고 있다. 시민의 학습이 지역사회 작동의 중심 동력으로 기능하도록 지역사회를 재구조화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 교육이 제대로 성립하려면, 가르치는 자고 배우는 자도 과도한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힘의 균형을 교육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깨지고 복원되어야 한다. 교육은 그런 역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서로의 권력을 인정하되, 그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이 작동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학습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 인문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강조한 대로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의 결합을 위한 평생학습은 양자의 통합적 역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인의 내적 역량은 사회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의 내적 역량은 '소모적 역량'으로 전락될 것이다.
- ▼ 평생학습사회 운동은 '학습문화', '학습혁명' 등과 함께 공진화해야 한다. 학습사회는 불평등과 구조적 장애물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운동은 삶과 문화의 코드를 새롭게 엮어나가는 **대안교육운동**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 잃어버린 돌봄과 배려의 원형을 교육 장면에서 다시 찾고자 하는 **실험정신**도 발휘해야 한다.
- 어떤 지역사회에서나 갈등은 세 가지 요소, 즉 여러 주체들의 대립적 관계,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한 저항적 표현 등으로 성립되고 있다. 평생학습운동은 경쟁적 학교체제의 붕괴, 가족의 해체 조짐, 지역사회의 파편화(소멸)를 극복하기 위한 방파제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 미래 사회에서는 형식적 학교를 넘어, 계획되고 자발적인 시간에 다양한 장소에서 학습을 제공하고 장려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야 한다. 삶의 모든 단계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평생에 걸친 성인학습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해, 숙련 및 재-숙련의 결핍 개념을 넘어 더욱 발달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계획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환경에 봉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습자가 기회를 깨닫고 현재와 미래의 혼란을 대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개념, 태도 및 기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 평생학습의 지향성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삶의 재충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인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시민적으로도 성숙되어야 한다. **사람다움과 시민다움은 분리될 수가 없다.**
- ▼ 한쪽으로 기운 협소한 사람이나 협소한 시민은 온전한 사람이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시민이 형성되어야 온전한 마을, 도시, 국가의 형성도 가능할 것이다.

- ▼ 인간적 성숙을 위한 평생학습과 ‘시민적 성숙’을 위한 평생학습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전인적 성숙’의 평생학습이다. 이것은 곧 몸과 마음의 동시적 성숙, 그리고 자아와 세상의 동시적 변화를 요구한다. 인간적 성숙과 시민적 성숙의 동시적 공진화를 위한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 ▼ 민주주의자는 인간적/도덕적 성숙과 시민적/정치적 성숙을 필요로 하다. 착한 시민과 정의로운 시민을 동시에 요구한다. 민주주의자는 도덕적 시민성과 정치성을 두루 갖춘 ‘전인적 시민’이다.
- ▼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력하고 연대하며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전인적 시민교육’을 통해 시민의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갈등을 극복한다는 것은 갈등 없는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근간인 이견을 합당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 지금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교육개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가교육개혁의 대전환은 생태적 회복, 인격적 회복, 자존 회복, 관계 회복, 인간의 존엄성 회복, 인권 회복, 공동체 회복, 정의 회복, 시민성 회복, 폭력·전쟁에서 평화 회복, 빈곤 및 양극화 극복, 재난위기 극복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삶, 정의롭고 민주적인 삶, 그리고 대안적 삶을 위해 거대한 사회변혁과 연동된 평생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한다.

## 5.

### 평생학습의 다양한 현장

-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성인참여 모델, 준-시장 모델, 소비자 크레딧 모델, 문화적 (삶의 양식) 모델, 여가소비 모델 등이 사용되어왔다.

학습 유형	의도적 학습	우연적 학습
형식적 학습 (제도교육)	형식교육과 훈련	형식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연적 학습
무-형식 학습 (가정, 일터, 지역사회) (자격증 없음)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계속된 학습의 본질	무-형식적 학습 에피소드에서의 우연적 학습 상황
비-형식 학습 (규제적/조직적 방식이 아닌 자발적 학습)	일상생활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일상생활에서의 전-의식적/ 전-인지적 학습(암묵적 지식)

Jarvis, 2010: 42

- 평생교육은 계속교육, 순환교육, 무형식 및 비형식 학습, 성인교육, 지역사회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체험학습, 실존적 학습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반-학습(반-사회화)’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 〈시흥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 ‘시민의 생각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습도시 시흥’<sup>2)</sup>: ‘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하나의 하위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다.
  - ▼ 마을 배움터를 조성하는 ‘공간 만들기’: 마을학교 공간 마련, 마을학교 이름짓기, 마을학교 운영팀 구성, 주민 요구 조사, 마을 자원 조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마을학교 운영규칙 만들기
  - ▼ 마을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사람 만들기’<sup>3)</sup>: 마을활동가 양성·배치, 마을 코디네이터 양성·배치, 마을강사 양성·배치, 마을자치 시스템 운영, 마을활동 네트워크 구축, 마을활동가 상호학습 운영, 마을활동 전문가 컨설팅, 마을활동 역량 강화
  - ▼ 관계적 자본을 형성하는 ‘문화 만들기’: 마을축제 운영, 학습동아리 육성, 공유 활동 전개, 나눔 활동 전개, 모임 활동 전개, 마을 일자리 창출, 마을 자립구조 마련, 마을 캠페인 활동

### 〈평생학습 만들기〉: 평생학습 활동과 마을만들기 활동의 유기적 결합<sup>4)</sup>

- 마을 만들기에서 학습은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학습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실천**’을 강조하는 학습 과정
-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교육은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마을학교의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이 개발되고, 이는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사들이 중심이 된 평생교육실천협의회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함<sup>5)</sup>
- ▼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정책은 ‘혁신교육지구정책’이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방점이 있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은 ‘지역 성인들의 교육’에게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하기에 서로 협력적 접근(협치)을 필요로 함

2)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최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만들기’, 즉 주민의 역량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충분히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도생이라고 상징되는 최근의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많은 정책들에 ‘공동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채용되기 시작하였다.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4) 시흥시는 마을학교를 거점으로 삼아 마을을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5)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시흥진로체험지원센터, 시흥마을융합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 ⇨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은 그 정책 범위(기초자치단체)와 접근 방식(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협력, 종합적인 지원체제 등) 등에서 공통점
- ⇨ 공동체 사업들의 분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1단계로 학교혁신교육지구사업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연계와 평생교육과 마을공동체사업의 연계가 상호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2단계의 통합적인 연계가 가능함
- ⇨ 마을공동체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불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은 혼동.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상에서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적 지원에 관심이 높으며, 주민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데에서 공통된 부분들이 계속 확장
- ⇨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 사업의 주체 형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공간에서 ‘지역을 만드는 학습과정’을 경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 평생교육 사업은 연동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지역은 많지 않다.

#### 〈오산시 시민참여학교 사업〉

- ▼ 혁신교육센터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연계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사업 등이 이러한 분절을 극복하려는 실험을 하고 있다. 오산시는 지역의 생태환경·역사문화·스포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민강사단을 양성해서 공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형 일자리 발굴과 교육복지 차원의 사교육 완화를 위해 시민강사들 (경력단절여성, 대학생, 청년 등)을 양성하여 지역의 교육복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복공부방 (기초학습, 멘토링, 영어 등)을 운영하는 공공 방과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 평생교육운동은 마을교육공동체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운동과 평생교육운동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상호관계를 재-개념화해야 한다. 이제 교육 체제는 학교체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체제는 계속적인 훈련 및 교육, 노동과 교육의 교대, 일터와 배움터의 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채널의 열림 및 통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지금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벌어지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발흥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는 중대한 징후’이다. 이러한 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지역사회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 평생학습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환경과 운영 방식까지도 평생학습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학습을 여가 활동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중심적 동력으로 보려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고 있다.



- 오늘날 또 다른 교육개혁의 흐름으로 단위학교 혁신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조직화<sup>6)</sup> 및 마을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을학교, 마을과 학교의 상생, 마을결합형학교 등 마을과 학교의 협업을 통해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가히 ‘**지역사회교육운동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하다.
-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은 평생학습의 다양화와 급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평생 학습은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종류의 학습을 포용한다. 지역사회교육의 외형적 참조점은 공동체, 지역성, 그리고 사회적 목적이지만, 평생학습은 세계화의 외형적 참조점보다 더 큰 단계를 바라본다.
  - ▼ 공동체 정신을 표현하도록 권장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지역사회교육(지역공동체교육)은 시민교육, 봉사학습, 환경교육, 일터교육, 맥락적 교육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Smith & Sobel, 2010: 21-30).
  - ▼ 지역사회교육은 실천과 발전을 위한 공동체교육,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교육, 그리고 학교 밖의 공동체교육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마을+공동체+교육이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는 시도교육청에서 중요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마을교육공동체’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짐: 최근 많은 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들(100개)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중이다.
- ‘마을(village)’은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그 가운데 공동체성을 지닌 마을은 종종 ‘마을공동체’라고 호명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학교와 마을이 공동체가 되려는 노력, 마을은 개인에 대한 존중과 타 지역에 대한 개방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마을의 여러 단체와 기관 가운데 하나로 보며, 이들의 연합을 통한 최종적인 형태 역시 학교가 아닌 마을의 형태임, 마을이 학교와 같이 교육적 기능을 하는 교육공동체가 되고 있다.
- 현대 **마을공동체의 토대**는 지역과 혈연이라는 공통점이 아닌 정신적 가치나 삶의 방향성이 공유되어야 한다. 자녀들에 대한 전인적 교육, 생태적 삶, 사회적 경제, 주민들의 평생교육, 생명과 평화사상 등을 공유하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토대가 될 수 있다(강영택, 2022: 39).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은 새로운 상상력과 촘촘한 마을 연대망을 필요로 한다.

6) 하그리브스와 셸리(2015)의 『학교교육 제4의 길』에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참여하는 시민 육성을 의미한다. 그들이 제안한 제4의 길은 새로운 시대에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고 지원하는 정부, 교육적 사명과 열정으로 무장한 교육자, 참여하는 대중, 이 삼자가 공공선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때 가능하다는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 ▼ 아이들을 마을의 주민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아이들을 그 지역의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주체적인 동네 사람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다.
-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들의 주체화와 네트워크**이다. 마을의 모든 주민이 먼저 자기 마을의 주체임을 자각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마을의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려면 ‘주체’가 출현해야 한다.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을의 탄생은 불가능,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시민화’가 필연적, 주민을 주체화하는 핵심에는 **‘주민의 시민으로 변화’**, 즉 **‘주민의 시민화’**가 존재한다.
- ▼ 지역사회의 시민적 주체 역량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 주민의 시민적 성장 없이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성장시키고 개혁하는 것은 지역민의 시민적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스템도 시대에 맞게 고쳐 나가되, 새로운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민주적 시민의식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자로 성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을 마을의 주민으로 키우고, 주민을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 ▼ 새로운 지역사회의 주체를 형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생학습운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의 확장을 모색하면서 일상과 학습의 연결, 일상생활을 통한 민주적 학습 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키워 가야 한다. 지역과 마을의 어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구현이 불가능할 것이다.
- ▼ ‘국가 중심 교육’에서 ‘지역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국민을 키우는 교육’에서 **‘지역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민의 시민화’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가의 국민’은 있되, ‘지역의 시민’은 없었기 때문이다.
- ▼ ‘시민적 학습’은 교실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든 시민적 학습은 일어난다. 지역사회 그 자체가 시민성을 위한 학교이다(Biesta, 2011: 177). 시민성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 미래의 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면, 매일 이루어지는 ‘시민적 학습(civic learning)’은 현재 실재하는 시민의 학습으로 볼 수 있다.
- ▼ ‘시민적 학습’은 사람들을 길들이는/순치 교육이 아니라, **‘성찰하는 시민’**을 필요로 한다. 시민적 학습은 사회화를 위한 학습보다 더 좋은 시민의 양성을 위해 더 좋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주체화(탈-동일시)를 위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
- ▼ 민주적 주체는 인격적/도덕적 주체여야 하고, 공동체적/사회의 주체여야 하고, 정치적/권력의 주체여야 한다. 민주주의자를 길러 내려면 ‘민주적 주체성’을 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Biesta, 2014).

- ▼ 마을공동체가 정의롭고 행복한 생태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나부터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가까이 이웃한 참여자는 기존 질서에 개입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을 배운다. 이웃은 거주민으로서 매일의 사회적 행위를 통해 다양한 시민성과 공동체의 실천이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환경이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시민적 학습’**이 필요하다. 평생학습은 주민과 학부모들이 삶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스스로 조직하고 수행하는 ‘시민적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시민적 학습’은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적 주체가 되게 하는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 6.

###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년 평생교육과 사회참여활동

- 앞으로의 **평생교육**은 **‘생애에 걸친 시민성 교육’**은 물론이고 **‘직업과 교육의 통합’**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확산되고 있는 학교와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도 연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의 학력 인정 등 **배움과 삶의 연결**이 더욱 요구되는 **미래교육**에 연결되어야 한다.
- 평생교육은 오늘날 **‘성인교육’**으로서의 평생학습, **‘시민교육’** 또는 **‘시민적 학습’**으로서의 평생학습, 그리고 **‘지역사회교육’** 또는 **‘지역공동체교육’**으로서의 평생학습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 주거와 사회생활공간으로서 **‘지역사회’**는 오늘날 대부분 **‘도시’**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더욱이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서 또는 도시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따라서 **평생학습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도시의 학습 환경**이다.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던 전통적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오늘날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운동**은 **시민이 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습활동을 시민 주도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성장한 민주시민의 역량으로 도시를 혁신하면서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 학습도시는 단순히 시민이 학습을 많이 하는 도시에 머물지 않고, **학습을 통해 향상된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 자체를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도시 혁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신일, 2020: 149).
  - ▼ 평생학습도시 운동은 **‘학습도시’**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평생학습도시운동**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가 협동해 모든 시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전체의 역량을 키움으로써 학습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과 행복 증진을 지속하려는 운동이다.
  - ▼ 평생학습 시대의 도시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모여서 교류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사회생활과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학습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도시의 특성**은 **다양한**



사회적 공간을 학습 인프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개인적 목적과 더불어 사회적 목적의 학습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시 발전의 토대로 삼는 것이다.

▼ **학습도시 운동**<sup>7)</sup>은 도시 전체를 시민들의 학습의 장으로 변모시키면서 도시를 재구조화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와해되고 약화된 지역 공동체를 ‘지역사회 재건’, ‘도시 재생’, ‘인문도시 건설’, ‘마을 만들기’,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아동 친화 도시’ ‘그린 생태 도시’ 등 여러 명칭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학습활동과 도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연계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세계 곳곳에서 도시 또는 지역을 단위로 교육,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가용 자원을 시민들의 교육과 학습 활동에 활용하고 학습을 통해 향상되는 지역사회 역량으로 경제 발전과 행복을 증진하려는 **지역사회학습운동**이 여러 모습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김신일, 2020: 154).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의 학습을 진흥한다.
- 학교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문화, 사회, 경제, 체육 등 모든 시설과 기관이 시민의 학습활동을 위해 참여한다.
- 학교제도 밖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형식·무형식 학습의 가치를 인증해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한다.
- 교육과 학습의 목적을 개인적 지식의 축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에 둔다.
- 도시 전체의 학습장화를 통한 시민의 학습활동 확대와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을 도시 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

■ 유네스코는 학습도시의 기본 특성 구조를 건물에 비유해 기초, 기둥, 지붕으로 표현하였다.

- 기초: 학습사회 건설에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건
  - (1) 강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
  - (2) 모든 관련 집단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와 참여
  - (3) 자원의 동원과 활용

7) ‘학습도시’의 개념은 1970년초에 OECD가 시민의 학습을 도시 발전의 기본 동력으로 삼아 도시의 경제 역량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시 발전 정책을 부각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학습도시운동’은 현재 유네스코가 주축이 되어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유네스코는 2012년에 ‘학습도시세계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이듬해 베이징에서 세계 여러 도시의 대표, 정부 관리,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제1차 학습도시국제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출판하여 회원국의 학습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도시세계네트워크에는 현재 50여 개 국가의 22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 기둥: 학습도시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적 학습활동 영역

- (1) 교육제도 내의 포용적 학습
- (2) 가정과 지역사회 내 학습의 부활
- (3) 일터에서 그리고 일터를 위한 효과적 학습
- (4) 학습을 위한 현대적 과학기술 이용의 확대
- (5) 학습의 질적 향상
- (6) 전 생애 학습문화의 활성화

• 지붕: 학습도시 건설의 세 가지 성과와 혜택

- (1) 개인의 자력화와 사회적 유대 강화
- (2) 경제 발전과 문화적 번영
- (3) 지속 가능 발전

▼ 세 가지 기본 요건으로 ‘학습도시’라는 건물의 기초를 쌓고, 여섯 가지 핵심 학습활동으로 기둥을 세우며, 세 가지 성과와 혜택으로 지붕을 이루는 구조다. 학습도시의 전당 처마에는 ‘모두들 위한 평생학습은 우리 도시의 미래’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으로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학습**(개인의 기술 향상과 직업적 성공 및 소득 향상을 직업적 학습), 삶의 의미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적 학습**(개인의 교양 향상과 인간 형성을 위한 인문적 학습), 공동체 참여와 주권자 권리를 위한 **시민적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와 주권 행사를 위한 정치적 학습) 등이 가능할 것이다.

▼ 이들 목적은 개인적 목적 추구하고 이익의 증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도 기여한다. 경제적 학습, 문화적 학습, 정치적 학습은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다음 것이 앞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확대되면서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시민의 학습생활 또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여가 활용과 사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활동으로 확장됨에 따라 학습의 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 이제 새로운 평생학습은 삶의 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생애전환형 평생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전환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 ‘**전환교육**’ 또는 ‘**전환학습**’은 기준에 갖고 있던 신념체계나 세계관, 인간관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기준에 갖고 있던’ 관점이 바뀐다는 점에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일어나기 어려운 종류의 학습이다. 전환학습은 성인기 학습을 개념화하는 것에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였다. 전환학습 이론으로 인해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 맺기가 인격적 만남뿐만 아니라 권력과 그에 대한 저항, 신뢰, 젠더, 미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식적 인식은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을 통해 성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환(transformation)**’이란 개인의 의미체계와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때 인식 및 행동의 전환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는 자율적으로 구성되며, 의미 관점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책임 있는 개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사회적 전환에 앞서 개인적인 관점 전환이 성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Mezirow, 1991).

- ⇒ **인식전환학습** 또는 **관점전환학습**에 있어 성인학습의 진정한 효과는 개인의 인식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인식 및 행동의 변화가 병행해서 이뤄질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식전환학습은 관습이나 전통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인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의미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학습자의 변화와 그들이 속한 상황의 변화를 통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정민승, 2013: 258).
- ⇒ 전환교육은 다른 한편으로 반-학습 혹은 반-사회화와 마찬가지로의 비판적 시각을 수반한다. 따라서 성인들은 지속적인 반성 과정을 통해 그들의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 전환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환의 발전단계는 자명한 생활세계에서 위협받는 생활 세계로, 전환된 생활세계로 구성된다. 의식이 생성되고, 전환하며, 통합된다.

#### 〈전환학습 과정 모형: 3단계 6수준〉

- ① 의식 형성 — 도전적 사건과 조우
  - 현실 직면
- ② 의식 전환 — 변화 지점에 이름
  - 초월을 위한 전환 또는 도약
- ③ 의식 통합 — 인격 수양
  - 기반 수립과 발전

- 전 국민의 생애전환교육이 가능하도록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은 은퇴 후 재고용 또는 은퇴 후 품위 있는 삶을 살도록 ‘중장년 전환학교’<sup>8)</sup>를 세워야 한다. 노년은 이웃과 함께 백세 시대를 위한 노년학습센터학교나 제3세대 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 ⇒ **생애전환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맞이하는 다양한 주요 생애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주도적인 진로 개발, 그리고 자기 향상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교육 및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8) 청소년에게는 ‘여백’이 있는 학교교육, 생각을 만드는 학교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환학년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청년의 교육 - 노동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전환교육이 중소기업의 역량 지원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학습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결과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으로부터 심각한 소외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시민 대화를 통해 미래 사회에 적용될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우리가 평생학습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교육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상자의 삶을 불러들여 **‘존재적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 평생학습의 궁극적 목적은 학력과 나이, 성별, 지역을 떠나 모든 존재에게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가 발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가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적 협력 과정을 통한 열린 광장의 학습을 지향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타자 지향적 학습**으로 귀결될 것이다.
  - ⇨ 인간은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 진화할 수밖에 없다. 삶의 세계에서 개인과 인간은 끊임없는 진화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평생학습은 성찰적 학습, 대화적 학습, 민주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Veugelers, 2011: 31-32).
- ▼ 평생교육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성격도 띠고 있다. 시간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여가활동뿐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해 교양 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 ▼ 이렇게 다양한 복합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평생학습은 교육과 학습을 위한 기관과 시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 시설은 물론이고, 교회, 사회복지관, 체육관 등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사회적 공간이면 어디에서나 학습은 일어난다.
- **듀이**는 『공공성과 그것의 문제들』(1927)에서 현대사회의 공론장(public sphere) 쇠퇴를 우려했다. 듀이가 지적하는 **공중(publics; 공적 대중)의 소멸**은 세 가지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는 시야가 좁은 공중이며, 둘째는 확산된 공중이며, 셋째는 무관심한 공중이다.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좁은 시야에 갇힌 어리석은 대중은 더 이상 공적인 존재가 아니다. 세분화된 이익집단의 한 명으로 확산된 공중도 공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적인 취향 속에 갇혀 사회나 정치에 무관심한 공중 또한 공적인 존재가 아니다. 퍼트넘 『혼자 불링하기』에서 **‘공중의 소멸’**을 초래한 중심 요인을 개인주의의 팽배와 시민의식의 실종에서 찾았다. 원자화된 대중 또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우충이 아니라 ‘민주적 공중’이 출현되어야 한다. 권위주의적 유령이 우리 주변을 여전히 배회하고 있기에 이런 유령을 쫓아내려면 **‘민주적 공중’**이 많이 탄생되어야 한다.
- ‘공중’이 아닌 어리석은 대중, 즉 ‘우충’만을 양산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초래할 뿐 아니라 히틀러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의 출현을 예방하려면 인권, 평화, 역사, 민주주의, 정치적·생태적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자생적 학습모임 등이 많아져야 한다. 모름지기 자기주도적 시민학습을 통한 공동체 주권을 지향하는 학습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로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민주주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광장 민주주의에서 가정 민주주의, 학교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로의 확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도적 민주주의와 함께 생활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튼튼하게 하려면 민주주의의 절차적·제도적 형태를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번의 투표로 권력을 교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정부의 지배형식이나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Dewey).
- 이제 평생학습운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신-사회운동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민주적/수평적 학습사회를 위한 평생학습운동은 사회 및 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의 도래를 위해 민주화, 전인화, 공동체화, 녹색화, 평화화 등의 가치 지향을 가져야 한다. 평생학습운동은 학교혁신을 넘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 및 학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확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택(2022),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 김신일(2020), 『학습사회』. 학이시습.
- 김신일·박부권(2005), 『학습사회의 교육학』. 학지사.
- 심성보(2018), 『한국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교육의 담론과 운동,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 심성보(2021), 『코로나 시대, 마을교육공동체운동과 생태적 교육학』. 살림터.
- 심성보·김태정(2022), 『시민이 만드는 교육 대전환』. 살림터.
- 정민승(2020) 『배움의 독립선언, 평생학습』. 살림터.
- 정민승(2021) 『평생학습,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에피스테메.
- 최운실(2019), ‘평생교육학의 학문적 기저와 확산: 경계너머 낯설게 다시 보기’,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의 분류와 합류: 실천의 확장과 이론의 융합>, 2019년도 상반기 연차학술대회.
- Biesta, G. 2011, A School for Citizens: Civic Learning and Democratic Action in the Learning democracy. B. Lingard, J. Nixon, & S. Ranson, (Eds.), *Transforming Learning in Schools and Communities: The Remaking of Education for a Cosmopolitan Society*. London: Continuum.
- Biesta, G.(2013), *The Beautiful Risk of Education*. Boulder: Paradigm Publishers.
- Biesta, G. 박은주 옮김(2022), 『학습을 넘어: 인간의 미래를 위한 민주교육』. 교육과학사.
- Delors, J. etals, 1996,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오름.
- Hargreaves, A. & Fullan, M. 1998, *What's Worth Fighting for in Education?*. Open University Press.
- Hogan, P.(2004), Teaching and Learning as Way of Life. J. Dunne & P. Hogan(2004), *Education and Practice: Upholding the Integrity of Teaching and Learning*. Blackwell.
- Jarvis, p.(2010),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Routledge.
- Jarvis, P.(2011), Lifelong Learning: A Social Ambiguity. P. Jarvis (Ed.). *The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Routledge.
- Johnston, R.(2014), Commun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J. Field, M. Leister (Eds.). *Lifelong Learning: Education across the Lifespan*. Routledge.
- Noddings, N. 심성보 옮김(2016),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살림터.
- Ranson, S.(1998), *Inside the Learning Society*. Cassel Education.
- Schuller, T. & Field, J.(2002), So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Learning Society. R. Edwards, N. Miller, N. Small & A. Tait(Eds.), *Supporting Lifelong Learning: Volume 3 Making Policy Work*. RoutledgeFalmer.
- Smith, G. A. & Sobel, D.(2010). *Place- And Community-Based Education in Schools*. New York & London: Routledge.
- Tett, L.(2010), *Community Education, Learning and Development*. Dunedin.
- Unger, R. M. 이재승 옮김(2019), 『지식경제의 도래: 경제의 혁신과 사회적 포용을 위하여』. 다른 백년.
- Veugelers, W.(2011), A Humanist Perspective on Moral Development and Citizenship Education: Empowering Autonomy and Citizenship Education. W. Veugelers(Ed.), *ducation and Humanism: Linking Autonomy and Humanity*. Sense.



## 토론

1

김 형 수

인천일보 논설주간

#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 전망과 사회참여 활동

김 형 수

인천일보 논설주간

중년기(middle age)는 일반적으로 ‘노년기가 시작되기 직전의 성인단계’로 인식된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 발달은 연속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사회·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중년기에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노년기의 직전 단계로서 중장년기는 보다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녕을 도모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생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저출산 기조에 따른 자녀양육 기간이 단축되고 수입과 여가의 증대, 여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등이 부각되는 인생 후반기의 출발점이다.

1950년대 이후 대표적인 발달이론가로 헤비거스트와 에릭슨을 들 수 있다.

헤비거스트(Havighurst, 1972)는 연령별 발달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고 중년기를 30~60세에 해당하는 시기로 분류했다. 중년기 발달과제로 1) 자녀가 가정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돕는다 2) 여가활동에 충실 3) 배우자와의 인간적 유대 4) 성인으로서 사회적·시민적 책임의 달성 5) 경제생활수준의 확립과 유지 6)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에의 적응 7) 노인이 된 부모에 대한 적응 등으로 제시했다.

에릭슨(Erikson, 1963)은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인간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중년기의 발달과업을 ‘생산성과 침체감’으로 표현했다. 이 시기 1)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2) 부부간의 애정 재확립 3) 중년기 위기의 극복 4) 직업 활동에 대한 몰두와 여가선용 등을 학습과제로 들었다. 이와 같이 중년층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만 신체·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절정에 이르고 은퇴를 감지하는 특성을 지닌 세대로 이해된다.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노인관련법 등을 적용하면 보편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청의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주관적 노인연령을 70.5세로 인식했다. 따라서 중노년층의 연령 범위는 노년기를 지각하는 70세를 기준으로 30세부터 70세 미만인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시기로 볼 수 있다.

평생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 내용은 인간의 생애주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단계별 학습의 가능성과 교육적인 탐색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영역 중 중장년기는 성인교육 대부분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인 셈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과거의 노인 연령층이 중장년층으로 분류되는 등 중년기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중년기는 인생주기의 중요한 단계로서 노년기로의 준비단계이다. 평생학습의 시대에서 중장년층이 향후 노년에 대비하고 노년에 관한 교육 등 노년교육이 중요한 평생학습 분야로 떠오르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156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스웨덴 135년, 영국 99년, 미국 90년, 일본 38년, 중국 34년에 비해 한국은 25년으로 단축돼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 등 시기적으로 노년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7.2%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년인구국으로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 고령인구비율은 14.21%로 2022년 현재까지 고령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인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sup>1)</sup>

〈표 1〉 고령인구 비율에 따른 국가·사회 분류(UN, 1957)

구분	유년인구국	성년인구국	노년인구국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65세이상 인구비율	4%미만	4~7%	7%이상	14%이상	20%이상

〈표 2〉 인천시 군·구 노인인구

행정구역	2021.12		
	고령인구비율(A÷B×100) (%)	65세이상인구(A) (명)	전체인구(B) (명)
인천광역시	14.8	435,431	2,948,375
중구	15.1	21,735	143,633
동구	23.9	14,670	61,486
연수구	10.5	41,021	389,644
남동구	14.6	75,633	518,272
부평구	15.7	76,493	486,765
계양구	13.8	40,840	295,696
서구	11.4	63,203	555,380
미추홀구	17.7	72,320	407,464
강화군	34.1	23,751	69,693
옹진군	28.3	5,765	20,342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은 고령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이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실정이다. 원도심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경제침체로 도시공간이 노후화되고 거주자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도시소멸을 걱정해야 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다.

1)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인천시의 고령화비율은 14.8%로 고령사회의 구조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 294만8375명 중 43만5431명으로 집계됐다. 중구 인구는 14만363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1735명으로 15.1%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말 중구의 30~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전체인구의 54.04%를 차지한다. 특히 영종·영종1·운서동 등 신도심에 중장년 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도심 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3〉 중구 연령(5세계급)별 인구(2020)

5세계급별	2020					
	총계		남자		여자	
	인구(명)	구성비(%)	인구(명)	구성비(%)	인구(명)	구성비(%)
계	139,729	100	72,485	100.00	67,244	100.00
0 ~ 4세	5,133	3.67	2,690	3.71	2,443	3.63
5 ~ 9세	6,762	4.84	3,438	4.74	3,324	4.94
10 ~ 14세	6,652	4.76	3,401	4.69	3,251	4.83
15 ~ 19세	5,997	4.29	3,161	4.36	2,836	4.22
20 ~ 24세	7,535	5.39	3,606	4.97	3,929	5.84
25 ~ 29세	11,598	8.30	6,098	8.41	5,500	8.18
30 ~ 34세	9,925	7.10	5,508	7.60	4,417	6.57
35 ~ 39세	11,384	8.15	6,064	8.37	5,320	7.91
40 ~ 44세	12,217	8.74	6,537	9.02	5,680	8.45
45 ~ 49세	12,379	8.86	6,907	9.53	5,472	8.14
50 ~ 54세	10,813	7.74	6,028	8.32	4,785	7.12
55 ~ 59세	9,633	6.89	5,233	7.22	4,400	6.54
60 ~ 64세	9,170	6.56	4,668	6.44	4,502	6.70
65 ~ 69세	6,756	4.84	3,287	4.53	3,469	5.16
70 ~ 74세	5,374	3.85	2,533	3.49	2,841	4.22
75 ~ 79세	3,946	2.82	1,800	2.48	2,146	3.19
80세이상 및 연령미상	4,455	3.19	1,526	2.12	2,929	4.36

자료 : 행정안전부

중구는 지난 2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늦게 선정됐지만 풍부한 개항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원도심은 도시재생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최근 2년여간 정상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막대한 제한을 받았다. 지역 평생교육은 12개 동(신포·연안·신흥·도원·울목·동인천·북성·송월·영종·영종1·운서·용유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도서관, 여성·복지시설, 어린이·청소년시설, 문화·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돼 왔다.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동 행정복지센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 연안·울목·영종1·운서 등 4개 동의 프로그램을 보면 <표 4>와 같다. 대부분 취미·오락 프로그램에 편중된 특성을 보인다. 중구는 역사체험프로그램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박물관 여행’, 단기 민간자격증 프로그램 ‘보자기아트’ 등 일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으나 재교육·직업전환 지원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표 4〉 중구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연안·울목·영종1·운서 4개동)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안동	에어로빅 요가 노래교실 고전무용 서예 사군자 헬스
울목동	차밍댄스 사물놀이 국악 한자 헬스
영종1동	중국어 수채화 캘리그래피 천아트공예 돔브라&포크기타 앙상블 삶과글쓰기 우쿨렐레&기타 색소폰 종이접기&클레이아트 컴퓨터엑셀·파워포인트·한글 SNS활용(사진편집/동영상제작) 초등코딩 줌바댄스 댄스스포츠 시니어건강체조 라틴댄스 필라테스 다이어트댄스 파크골프
운서동	중국어 일본어 영어회화 다이어트댄스 댄스스포츠 실버댄스 발리댄스 고전무용 노인건강체조 요가 파크골프 실버태권도 컴퓨터교실 스마트폰200%활용 수묵화 서예 캘리그래피 심리미술치료 민요·장구교실 기타·우쿨렐레 노래교실 K-POP댄스 레고블럭·사고력보드게임 어린이한자 댄스핏 웰빙사교댄스 파워댄스

출처 :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주민자치센터소개.

〈표 5〉 인천시 군·구 노인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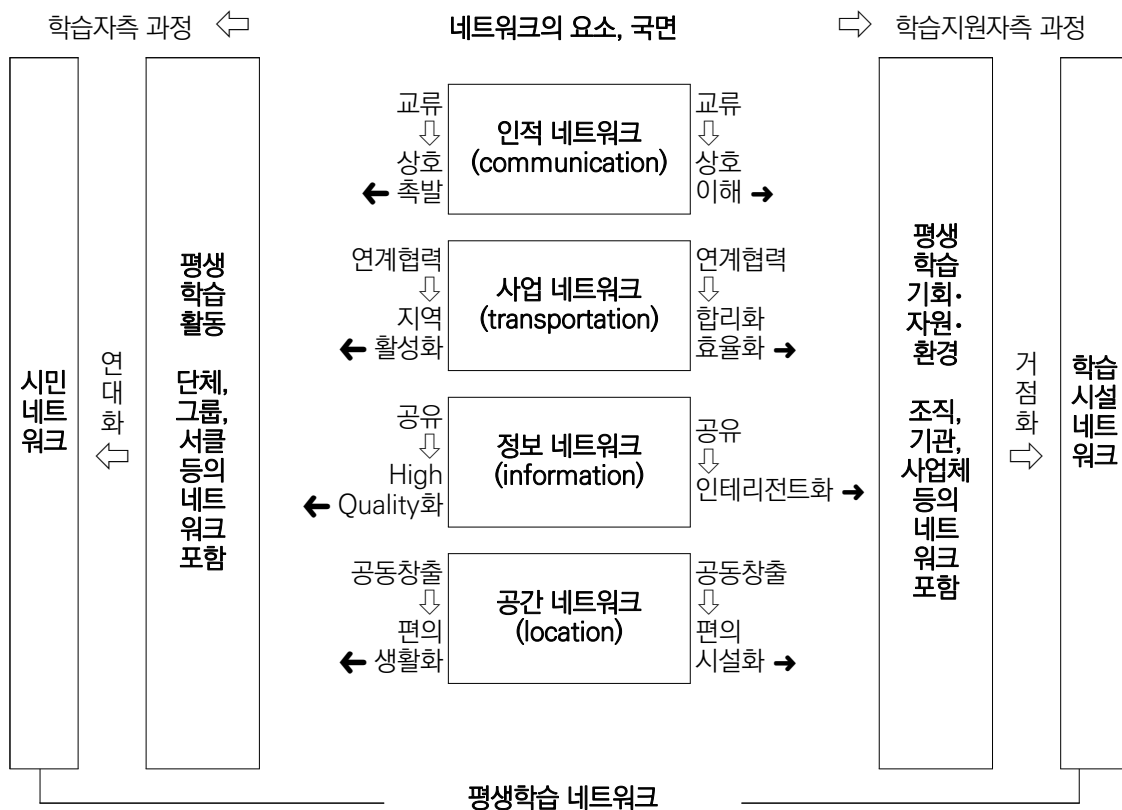
행정구역	2021.12		
	고령인구비율(A÷B×100) (%)	65세이상인구(A) (명)	전체인구(B) (명)
인천광역시	14.8	435,431	2,948,375
중구	15.1	21,735	143,633
동구	23.9	14,670	61,486
연수구	10.5	41,021	389,644
남동구	14.6	75,633	518,272
부평구	15.7	76,493	486,765
계양구	13.8	40,840	295,696
서구	11.4	63,203	555,380
미추홀구	17.7	72,320	407,464
강화군	34.1	23,751	69,693
옹진군	28.3	5,765	20,342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2001년 유성구, 경기 광명시, 전북 진안군 등 3개 도시가 첫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 인천은 올해 중구와 동구가 합류해 8개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3.2%인 188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진입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지역·국가 간 연계로 확대하고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학습자원을 연결하게 된다. 그래서 중앙의 관리 또는 통제에서 자유롭게 지역사회 스스로가 학습도시 구축에 대한 철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 교육청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다. 지역의 고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학습요구 조사는 프로그램 개발의 첫 단계이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새 지평을 여는 중구는 지역의 가용 가능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한 지역 학습네트워크 실현에 나서야 한다.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평생교육 기관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1〉 평생학습 네트워크 영역

자료 : 井上講四·手打明敏(1989). "生涯學習施設のネットワーク." 日本生涯教育學會編「生涯學習社會の総合診断」, p. 71.

중구의 학습네트워크 영역은 평생학습 인적자원, 사업, 정보·공간의 교류 등을 모색할 수 있다. 교·강사, 평생교육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의 네트워크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요소다. 지역 평생학습 단위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체계화된 협력체제를 구축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평생학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한다. 평생교육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교재, 교구 등 물적 자원을 개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중구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체제를 갖춰 나가게 됐다. 현재의 위기와 기회,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확대해야 할 때다. 중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체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인력은 충분한가? 평생교육 추진 기관간의 연계는 원활한가? 조례제정과 재정이 필요한가? 학습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등 평생학습도시 운영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구의 인구구조 특성은 중장년층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신도심 지역에 중장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원도심 지역은 인구공동화,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영종 지역에 중장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원도심 지역의 노년 프로그램이 보강돼야 할 것이다. 내년 준공하는 영종 평생학습관과 올해 말 개관하는 울목동 원도심 지역 분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노년교육 프로그램이 중구의 랜드마크 프로그램으로 개발되길 제언한다. 노년교육은 ‘노인에 대한’ ‘노인에 관한’ ‘노인에 의한’ 교육이다. 학습대상자는 청장년뿐만 아니라 노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토론

2

김 명 랑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중장년을 위한 전환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어떤 요구가 있는가?







## 중장년을 위한 전환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 어떤 요구가 있는가?

김 명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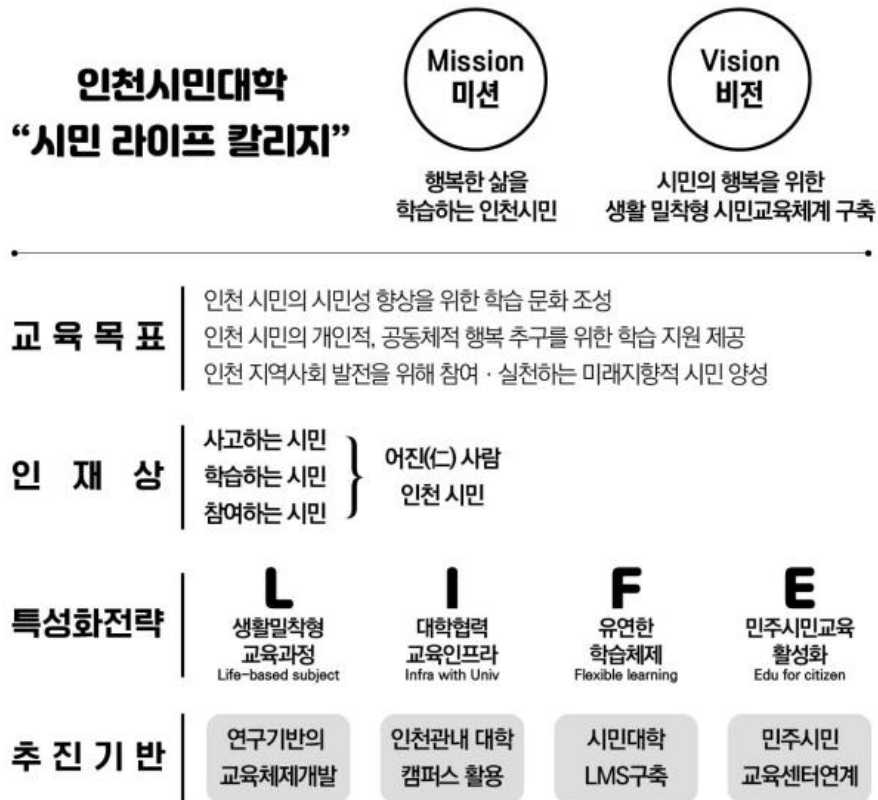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실장

- 주제발표 원고 6쪽에 기술된 ‘이론과 실천(praxis)의 정착’, ‘평생교육에서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 메꿈’, ‘평생교육의 새판 짜기의 절실함’은 평생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입장에서 평생교육의 새판 짜기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고에 제시된 진정한 의미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과 ‘존재하기를 위한 배움’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평생학습의 중심이 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적 요구를 보다 실천적 입장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론이 후행하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론이 마련되어 평생교육의 정책적 기반을 이루거나, 지역의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적 절차가 수립되어야만 이상과 현실의 조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정책 수립,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는 평생교육사이고,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실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사회적 기대와 책무를 바탕으로 활동(김진화 외, 2008)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평생교육사는 조직 안에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종사자이자 수적 소수자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전문가로서 자율성과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채 지역 평생교육과 관련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김한별, 2016)에 놓여 있고, 지역사회의 현장과 사회정치적 맥락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조화롭게 조합하여 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지향점을 실천할 주체로서 평생교육사의 직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 1.

**평생학습의 다양한 현장 더하기 :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 인천의 경우 시민대학이란 명칭의 사업은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또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지만, 시민들의 학습이력 및 성과관리는 기관마다 분절되어 지속 가능한 시민역량 강화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및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로 인천시민대학을 강화하고, 인천 시민들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자기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인천시민대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19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한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에 의하면, 인천시는 다문화 가족, 타 지역 전입인구 등이 많은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인구 유동성이 많은 지역의 특징을 지니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장준호, 정창화, 정하윤, 2019)되었습니다. 이에 시민의 무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교육과 시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고 여유로운 복지를 누리는 방향에서의 시민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삶의 질이 주거, 경제 등 객관적인 준거 외에 평화, 인간, 선 등 인간과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 인천시민대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더 잘사는 삶’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과 대안교육에서 주목하는 ‘행복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관점(심정보, 2014)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목하고 방향성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국가 안에서의 시민의 삶, 더 큰 공동체인 국가를 지향함에 있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잘 살기’ 위해서이고, 더 잘 산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행복이 서로 조화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더불어 인간의 행복, 잘 사는 삶이라는 개념 속에는 복리, 만족, 존엄성이 포함되어 있고 복리로서 교육이 작용해야 하고 행복에 대한 자기평가를 통해 만족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기교육’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석희 역, 2010)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인천시민대학은 2022년 정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4월에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6개의 대학 캠퍼스(가천대학교 선배시민캠퍼스, 경인여자대학교 가족시민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의 세계시민캠퍼스, 인하대학교 청년시민캠퍼스, 인천대학교 온시민캠퍼스, 경인교육대학교 처음시민캠퍼스)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본부캠퍼스가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4개 공공기관 캠퍼스(계양구, 남동구, 서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는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앞두고 2학기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기관캠퍼스 6개 기관(인천재능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외)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은 강의 외에도 다양한 지역, 시민행사를 개최하여 인천만의 고유한 평생학습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대학의 체계 및 운영모델 연구(김명량, 윤초롱, 박인우, 김종윤, 2021)에서 인용

- 인천시민대학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스마트한 평생교육 정책 사업으로 평가받는 중입니다. 인천시민대학이 인천 관내 대학의 캠퍼스를 인천시의 공공재로, 인천 시민에게 개방하였다는 점이 특히 그러합니다. 시민들은 대학이 지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을 다니며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대학은 시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교육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개념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 간의 협력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인천시의 지원, 진흥원의 자체 연구와 사업 추진, 대학의 협력으로 인천만이 가능한 실제적 모델로 실현되어 국가 및 타 시·도에 모범적 사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2.

### 중장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 인천시민대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sup>2)</sup>

- 인천 시민대학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2021년 8월 한 달간 설문을 시행하였고,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총 1,172명의 인천 시민이 응답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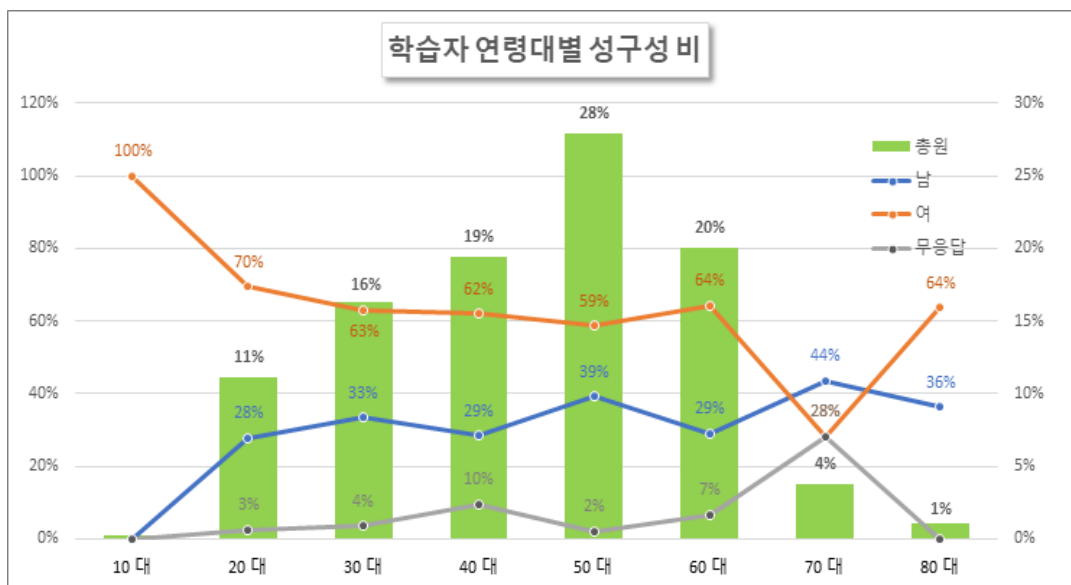
2) 김명량, 윤초롱, 김월용, 김종윤 (2022).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도시연구 21**호, 179-226. 재구성

30-40대와 40-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는 진로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30-40대는 진로직업, 생활환경, 인문, 40-50대는 진로직업,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50-60대는 진로직업, 문화예술, 부모-가족, 60-80대는 디지털-미디어, 인문, 문화예술로 나타났습니다.

- 40-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든 교육 분야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진로직업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0-30대는 진로직업, 생활환경의 2개 분야, 30-40대는 진로직업, 생활환경, 인문, 부모-가족, 디지털-미디어의 5개 분야, 40-50대는 디지털-미디어, 진로직업, 생활환경, 인문의 4개 분야, 50-60대는 부모-가족, 진로직업, 인문의 3개 분야, 60-80대는 인문, 생활환경의 2개 분야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야	프로그램	
연령별	20-30대	진로직업, 생활환경, 문화예술, 인문
	30-40대	진로직업, 생활환경, 인문, 부모-가족
	40-50대	진로직업, 디지털-미디어, 인문, 생활환경
	50-60대	진로직업, 부모-가족, 인문, 문화예술
	60-80대	인문, 생활환경, 디지털-미디어, 문화예술

- 추가적으로, 인천시민대학 강좌를 신청한 시민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가 28%, 60대가 28%, 40대가 19%, 30대가 16%, 20대가 11%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주도적인 진로 개발, 자기 향상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교육 및 학습활동의 필요성(원고 15쪽)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 시민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천시민대학에서 교육받고 싶은 프로그램의 요구에 국한된 예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포럼을 통해 중장년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별화된 가치와 내용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문헌]

- 김명량, 윤초룡, 박인우, 김종윤 (2021). 인천시민대학 체계 및 운영모델 수립 연구. ITLE-R-2021-01.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김명량, 윤초룡, 김월용, 김종윤 (2022). 인천시민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 요구 분석. 도시연구 21호, 179-226.
- 김석희 역(2010). 행복에 대한 모든 것들. 휴머니스트.
- 김진화, 김한별, 고영화, 김소현, 성수현, 박새봄 (2008). 평생교육사 직무모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4(1), 1-31.
- 김한별 (2016). 평생교육사의 직업사회화 : 지자체 근무 평생교육사 경험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2(3), 27-53.
- 심성보(2014).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서울: 살림터
- 장준호, 정창화, 정하윤(2019).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추진방안. ITLE-2019-03. 인천평생교육진흥원·경인교육대학교.



## 토론

# 3

배 은 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중구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기대하며







## 중구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기대하며

배 은 주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1.

### 중장년층에게 평생학습이 중요한 이유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기도 전에 벌써 학자와 언론에서는 ‘5차 산업혁명’과 ‘6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정도로, 전 세계는 여전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환경 위기와 감염병 위기를 겪으면서 글로벌 사회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학령기에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또한,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길어진 삶을 어떻게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제2, 제3의 인생설계와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길어진 삶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어 중장년층의 퇴직 이후 재취업과 재창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 세대보다 학력과 경제력이 증대된 지금의 중장년층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 이들이 유의미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식과 가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길어진 삶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생애설계를 위한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중장년층의 평생학습은, 학령기의 학습과 달리, 실천으로 귀결되기 쉬운데, 이러한 실천은 중장년층에게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때의 ‘일’은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는 직업적 성격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이타적인 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참여활동은 이러한 ‘이타적 성격의 일’이 될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을 통해 필요한 학습을 또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장년층의 평생학습은 일과 유기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적 연계성을 고려해 보면, 중장년층의 평생학습은 ‘생산주의적 평생학습’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sup>

심성보 교수님의 말씀대로 중장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길어진 노후에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학습’과 품격 있는 시민으로서의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문화적 학습’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이자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시민적 학습’의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1) 김인엽 외(2017). 중장년의 일과 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제부터의 중장년층은 이전과 달리, 학력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으며,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세대이다. 이들은 길어진 삶 속에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의지도 강하며 좀더 의미있는 노년을 준비하려는 세대이다. 따라서 중장년층에게 평생학습은 단순한 학습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알찬 노후를 준비하며, 인적 자원으로써 새로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개인에게도 유의미할 뿐 아니라 참된 시민으로서 사회에게도 일정 부분 공헌하는 삶을 살게 해 주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중장년층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하고, 다양한 생애설계의 경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인 평생학습 시스템과 평생학습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구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 평생학습도시 중구의 준비

평생학습도시로 새출발하는 중구는 이러한 준비에 보다 철저할 필요가 있다. 중구는 신도시로 조성된 영종 지역과 그렇지 않은 내륙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종 지역의 경우 신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 지리적 구분은 지리적 환경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구구성, 거주계층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의 수요 또한 다양할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수요에 민감해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수요를 선도하고 창출해야 한다.

가령, 영종 신도시 지역의 경우 10대 자녀들이 많아 이들의 부모세대인 중장년층의 인구 구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 중장년층은 학력, 경제력 등에서 내륙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사회참여, 노후설계 등에 관심이 많고, 영종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이들에게 적절한 생애설계, 재취업과 재창업, 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내륙 지역도 지역 및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구 내륙의 경우 소외된 학습 약자(노인, 장애인, 저학력 성인, 이주민 등)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에도 신경써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륙 지역의 경우 대학캠퍼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시니어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지역 중장년층의 특성과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야 한다. 이미 일본, 독일 등 초고령사회가 된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제3세대 대학’(U3A) 유형도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중장년층의 다양한 관심사와 욕구를 조사하고, 중장년층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점검하고 구축하며, 수요에 부응하고 수요를 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구상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관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년층 평생학습자들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 및 플랫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중장년층이 노후준비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감으로 ‘평생학습 유목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sup>2)</sup> 중구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2) 하지수 기자(2019.07.30.). 퇴직 후 ‘평생학습 유목민’ 되는 중장년, 왜?. 조선에듀.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1454.html](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9/2019072901454.html)



## 토론



허 은 숙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 사업전략팀장

#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





## 교육과 사회공헌활동 \_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허 은 숙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 사업전략팀장

### I.

### 역량개발, 일자리 및 사회참여 등 연계 교육

- 4개 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 및 보람일자리에서 총 493개의 교육과정을 개설, 17,263명 모집

- 전체 교육과정은 자아성찰과 삶의 전환을 돕는 ‘자기이해’, 인생후반기 진로 개척과 새로운 삶의 정착에 필요한 ‘역량개발’, 50+세대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참여’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집합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교육 및 온&오프라인 병행과정 포함

구분	합계	자기이해	역량개발	일자리 및 사회참여
과정 수	493개 과정	113개 과정	255개 과정	125개 과정
정원	17,286명	3,177명	5,608명	8,501명

- 사회적 변화와 50+세대 수요 기반, 역량개발 및 사회참여 교육 확대

- 먼저, 50+세대의 실질적 일·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전체 교육과정의 51.7%로 확대
  -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콘텐츠를 정비·신설, ‘메타버스 탐험대’ 등 255개 과정 운영, ‘MZ세대 소통 역량 향상 워크숍’ 등 사회 내 세대갈등 및 소통문제 개선 프로그램 진행
- 보람일자리 교육 강화, 서울시기술교육원과 협업과정 개설 등 사회공헌 활동, 일자리로 연계되거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사회참여 과정 확대
  - ‘소상공인 사진홍보지원단’ ‘디지털 금융강사 도전하기’ ‘바리스타 입문’ 등 125개 교육 프로그램

## 붙임

## 교육 운영 현황

## ■ 교육과정 구성

구분	역량개발(52%)	사회참여(25%)	자기이해(23%)
	255개 과정 5,608명	125개 과정 8,501명	113개 과정 3,177명
정의	인생 후반부 진로개척과 새로운 삶 정착에 필요한 역량 개발 과정	50+세대의 능력과 재능을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주체적인 삶의 전환을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인생비전 수립 과정
	기초소양, 미래대응, 능력개발	일자리, 사회공헌, 창업/창직	자기발견, 동기부여, 비전수립

## ■ 50플러스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 상반기 교육과정(표)

## □ 서부캠퍼스(은평구 불광동 소재)

• 상반기 교육과정 : 51개 과정 / 1,015명 모집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자기 이해	생애 설계 상담소	1	[생애설계상담소]세무:절세와 양도소득세	3.25-4.15(금) 15-17시	15
		2	[생애설계상담소]슬기로운 여가생활 시작하기	3.18(금) 14-16시	20
		3	[생애설계상담소]취미로 일하는 의미있는 여가생활	4.22(금) 14-16시	20
		4	[생애설계상담소]취미로 봉사하는 보람있는 여가생활	5.27(금) 14-16시	20
		5	[생애설계상담소]취업역량강화 참 쉬운 이력서 쓰기	4.29(금) 14-16시	20
		6	[생애설계상담소]나에게 맞는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5.13-5.20(금) 14-16시	20
		7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 상속과 유언	4.19(화) 14-16시	20
		8	대한가정복지법률상담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 임대차	5.17(화) 14-16시	20
	인생 학교	9	50+인생학교 21기(서부)	3.16-5.18(수) 16-19시	30
	자기 이해	10	50+연기교실 7기 : 목소리 연기로 드라마 완성하기	3.15-5.17(화) 14-16시	15
		11	그림으로 만나는 나 : 관계편	3.25-4.29(금) 14-16시	10
		12	50+를 위한 식탁 위 심리학	4.5-5.3(화) 10-13시	12
		13	50+북클럽 9기 : 삶의 과목 읽기	3.14-5.23(월) 14-16시	15
		14	50+를 위한 자선활동의 세계 특강1	3.24(목) 14-15시30분	50
		15	50+를 위한 자선활동의 세계 특강2	3.31(목) 14-15시30분	50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역량 개발	공통 디지털 역량	16	학습과 모임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익히기	3.15(화) 10-11시30분	100
		17	스마트폰 활용의 모든 것 8기	3.29-5.17(화) 14-17시	20
		18	디지털 맷집 키우기 1(사진편집)	4.4/7(월/목) 14-17시	15
		19	디지털 맷집 키우기 2(SNS도구)	4.11/14(월/목) 14-17시	15
		20	디지털 맷집 키우기 3(스마트워크)	4.18/21(월/목) 14-17시	15
		21	디지털 맷집 키우기 4(디자인플랫폼)	5.9/12(월/목) 14-17시	15
		22	디지털 맷집 키우기 5(디지털맵)	5.16/19(월/목) 14-17시	15
		23	홈네트워크 설계와 구축	3.14-5.9(월) 15-17시	15
	미디어 콘텐츠	24	영상제작자를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3.28-5.9(월) 10-12시	20
		25	1인 미디어 활동을 위한 촬영교실 2기	3.14-5.23(월) 14-17시	15
		26	50+유튜버 도전하기 5기	3.17-5.12(목) 10-13시	20
		27	키네마스터 전문가과정 4기	3.15-5.3(화) 14-17시	20
		28	디지털 드로잉 입문과정(4월)	4.6-4.27(수) 10-13시	15
		29	디지털 드로잉 입문과정(5월)	5.4-5.25(수) 10-13시	15
		30	정지형 이모티콘 제작하기	5.4-5.25(수) 14-17시	15
		31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하기	6.8-7.27(수) 14-17시	15
		32	일상툰 작가 도전하기	6.9-6.30(목) 14-17시	15
	돌봄 기술	33	홀로올로학교 : 요리의기술(만능소스편)	4.5-4.26(화) 11-14시	12
		34	홀로올로학교 : 요리의기술(한상차림편)	5.10-5.31(화) 11-14시	12
		35	홀로올로학교 : 요리의기술(셀프집수리)	3.16-4.6(수) 10-12시	15
		36	중년남성요리교실 : 실속 집밥 만들기(국&반찬)	4.6-4.27(수) 10-13시	12
		37	중년남성요리교실 : 세계요리 밀키트 만들기	6.13-7.4(월) 10-13시	12
	신기술 체험	38	개더타운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입문하기 2기	3.29-4.26(화) 15-17시	15
		39	개더타운 맵 제작과정	5.3-6.7(화) 15-17시	15
	전직 준비	40	인생후반기 새로운 커리어 전략! N잡 도전하기	4.6-5.4(수) 14-17시	20
사회 참여	일· 연계	41	50+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과정 3기	3.17-6.9(목) 10-13시	20
		42	아이돌봄서비스 매칭플랫폼 자란다와 함께하는 '아이돌봄 선생님 도전하기'	4.7-4.28(목) 14-17시	20
		43	디지털 금융강사 도전하기	3.15-4.5(화) 14-17시	15
	1인 비즈 니스	44	50+도시민박창업 길라잡이 10기	3.15-5.17(화) 10-13시	15
		45	[퇴근길캠퍼스]웹소설 작가편 2기	4.4-5.30(월) 19시30분-22시	20
		46	[퇴근길캠퍼스]스마트스토어 쇼핑물창업가편 2기	3.22-4.26(화) 19시30분-22시	20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지역 참여 활동	47	50+집수리 장인교실 5기	3.16-5.4(수) 14-17시	20
		48	자전거 정비사 과정 7기	3.17-5.26(목) 14-17시	15
		49	지역생태보호 자원활동가되기 3기	3.17-5.19(목) 9시30분-12시30분	15
		50	결혼이주여성 지원활동 첫걸음 3기	3.23-4.27(수) 15-17시	20
	자원 봉사	51	NGO해외활동 첫걸음 4기	3.18-5.27(금) 10-13시	25
합계					1,015

#### □ 중부캠퍼스(마포구 공덕동 소재)

• 상반기 교육과정 : 48개 과정 / 1,359명 모집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자기 이해	생애 설계 상담소	1	[생애설계상담소]관계와 사회공헌	5.10(화) 14-16시30분	20
		2	[생애설계상담소]생애설계와 재무관리	5.17(화) 14-16시30분	20
	자기 이해	3	[전문기관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 부동산분쟁	3.25(금) 10-12시	40
		4	[전문기관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 가맹사업 분쟁	3.18(금) 10-12시	40
		5	[전문기관연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사례로 보는 연금자산관리법	5.19(목) 10-12시	30
		6	[디지털신기술 특강]제대로 알고가자! 가상현실!	미정	120
		7	[디지털신기술 특강]블록체인, NFT	미정	120
		8	[디지털신기술 특강]AI	미정	120
		9	[필수입문]오십 이후 인생재설계 : 평생 현역되기	3.21(월) 14-17시	20
		10	50+이후 나의 커리어 재발견	4.8-5.13(금) 10-12시	20
		11	연극으로 '또 다른 나' 찾기	4.6-5.11(수) 14-17시	20
역량 개발	소통 역량	12	[특강]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4.6(수) 10-11시30분	100
		13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한강 플로깅	5.20-5.27(금) 14-16시	20
		14	50+대화의 기술 : 비폭력 대화법	3.15-4.19(화) 14-17시	20
	공통 디지털 역량	15	[수강생편]ZOOM으로 온라인 강의듣기(3.11)	3.11(금) 14-16시	20
		16	[수강생편]ZOOM으로 온라인 강의듣기(3.18)	3.18(금) 14-16시	20
		17	[강사편]온라인 톨킷으로 강의 교수되기	4.5-4.26(화) 10-12시	30
		18	구글 앱스로 스마트워크 입문하기	3.14-4.18(월) 10-12시	20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신기술 체험	19	메타버스 '제페토' 크리에이터 입문하기	4.5-4.26(화) 14-17시	20
		20	드론 항공 촬영부터 영상 편집까지	3.16-5.4(수) 9시30분-12시30분	20
		21	코딩 기초로 미니드론 조종하기	4.20-5.25(수) 14-17시	20
	전직 준비	22	시간을 줄이는 구직정보 활용하기(3월)	3.15(화) 14-17시	20
		23	시간을 줄이는 구직정보 활용하기(4월)	4.19(화) 14-17시	30
		24	실전에 필요한 커리어 포트폴리오	3.22-4.12(화) 14-16시	20
		25	지원서 문서 작성을 위한 OA활용법	3.23-4.13(수) 14-16시	20
		26	나를 브랜딩하는 실전 이미지메이킹	5.3-6.7(화) 10-12시	20
	미디어 콘텐츠	27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3.16-5.4(수) 10-13시	20
		28	사진 입문 : 초보자를 위한 A to Z	3.17-5.12(목) 10-13시	20
		29	미리캔버스로 모바일 콘텐츠 만들기	4.8-4.15(금) 10-12시	20
		30	50+동화작가 도전하기	3.21-5.16(월) 10-13시	20
		31	50+웹툰작가 도전하기	4.7-6.2(목) 10-12시	20
		32	1인미디어 채널 시작하기 : 인스타, 블로그	3.18-5.6(금) 10-13시	20
	돌봄 기술	33	남자의 부엌 : 만능소스 요리비법	5.9-5.30(월) 14-17시	8
		34	남자의 부엌 : 든든한 한그릇 요리	4.4-5.2(월) 14-17시	8
		35	돌봄전문가 영양보호사 입문하기	5.12-6.2(목) 10-12시	20
사회 참여	자원 봉사	36	발도르프 장난감놀이 강사되기	3.25-5.20(금) 14-16시	20
		37	소상공인 사진홍보지원단	4.5-5.24(화) 14-17시	20
		38	소상공인 쇼핑라이브지원단	3.16-5.4(수) 14-17시	20
		39	쉬운 생활목공 : 블루투스 스피커	4.18-5.30(월) 14-17시	8
		40	치매예방교육 강사 입문 : ICT 활용	4.4-5.30(월) 14-16시	20
	지역 활동	41	라디오 방송활동가 7기	4.21-6.16(목) 14-17시	20
		42	드론축구교실 활동 입문 1기	3.16-5.4(수) 9시30분-12시30분	20
	1인 비즈 니스	43	사진으로 돈버는 스톡사진가	3.16-5.4(수) 9시30분-12시30분	20
		44	오디오작가 도전하기 : 오디오북 출판	4.12-5.31(화) 10시-12시	10
		45	50+의 지식콘텐츠로 전자책 만들기(e-PUB)	5.3-6.21(화) 14시-17시	20
		46	재미있는 APP 개발로 수익내기	3.14-5.9(월) 10-13시	20
		47	사회적기업 창업 9기	3.17-6.9(목) 14-17시	20
	일· 연계	48	디지털금융강사 양성	3.7-3.28(월) 14-17시	15
합계					1,359

## □ 남부캠퍼스(구로구 오류동 소재)

• 상반기 교육과정 : 57개 과정 / 1,300명 모집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자기 이해	생애 설계 상담소	1	[생애설계상담소]똑똑한 연금 운용으로 노후 대비하기	4.14-4.28(목) 10-12시	20
		2	[생애설계상담소]50+일자리 트렌드와 나의 일 찾기	4.6-4.27(수) 10-12시	20
	자기 이해	3	[미래를 준비하는 2022 트렌드] 나노사회와 50+세대의 킥이코노미	3.15(화) 15-17시30분	100
		4	미래를 준비하는 2022 트렌드] 러스틱라이프와 5도 2촌을 사는 사람들 이야기	3.22(화) 14-16시30분	100
		5	[미래를 준비하는 2022 트렌드] 헬시플레저, 이렇게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3.29(화) 14-16시30분	100
역량 개발	공동 디지털 역량	6	줌 기초활용법(3월)	3.14(월) 14-16시	20
		7	줌 기초활용법(4월)	4.11(월) 14-16시	20
		8	줌 기초활용법(5월)	5.9(월) 10-12시	20
		9	줌 기초활용법(6월)	6.13(월) 14-16시	20
		10	커리어를 위한 문서작성실무: 한글	3.17-4.7(목) 14-17시	20
		11	커리어를 위한 문서작성실무: 파워포인트	4.14-5.12(목) 14-17시	20
		12	커리어를 위한 문서작성실무: 엑셀	5.19-6.2(목) 14-17시	20
		13	하루완성 생활 앱 마스터하기: 생활필수 앱	3.15(화) 14-17시	25
		14	하루완성 생활 앱 마스터하기: 민원업무 앱	3.22(화) 14-17시	25
		15	하루완성 생활 앱 마스터하기: N잡러를 위한 일자리 앱	3.29(화) 14-17시	25
		16	4주완성 SNS 활용법	5.2-5.23(월) 14-17시	20
		17	비대면 강의 스킬업 과정	3.17-3.31(목) 14-17시	20
	신기술 체험	18	나도, 메타버스 탄다!: 이프렌드	3.17(목) 10-13시	20
		19	나도, 메타버스 탄다!: 제페토	3.24(목) 10-13시	20
		20	나도, 메타버스 탄다!: 게더타운	3.31(목) 10-13시	20
		21	3D모델링과 출력(3월)	3.15(화) 13시30분-17시30분	10
		22	3D모델링과 출력(4월)	4.12(화) 13시30분-17시30분	10
		23	3D모델링과 출력(5월)	5.17(화) 13시30분-17시30분	10
		24	3D모델링과 출력(6월)	6.14(화) 13시30분-17시30분	10
	미디어 콘텐츠	25	크로마키 촬영과 편집(3월)	3.22(화) 14-17시	10
		26	크로마키 촬영과 편집(4월)	4.19(화) 14-17시	10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27	크로마키 촬영과 편집(5월)	5.24(화) 14-17시	10	
		28	크로마키 촬영과 편집(6월)	6.21(화) 14-17시	10	
		29	15초만에 사로잡는 숏폼 콘텐츠 만들기	4.14-5.12(목) 14-17시	20	
		30	스마트폰 영상제작 첫걸음	3.15-5.3(화) 10-13시	20	
		31	나만의 팟캐스트 만들기	3.18-4.22(금) 10-13시	20	
		32	인기있는 이모티콘 만들기	3.21-5.2(월/목) 14-17시	20	
	소통 역량	33	MZ세대가 알려주는 그들의 진짜 이야기	4.7-4.28(목) 10-12시	20	
		34	MBTI 유형별 맞춤 소통법	3.29-4.12(화) 10-13시	20	
	돌봄 기술	35	나홀로 레시피: 셀프 인테리어	3.29-4.26(화) 10-13시	15	
		36	나홀로 레시피: 신박한 정리수납	4.22-5.27(금) 14-16시	20	
		37	나홀로 레시피: 1인가구 랜선 독서클럽	3.17-4.21(목) 10-12시	20	
	전직 준비	38	가치를 높이는 취·창업 이미지메이킹	3.14-4.4(월) 14-16시	20	
		39	취·창업에 통하는 업무용 글쓰기	3.23-4.13(수) 14-17시	20	
		40	3D프린팅 메이커스 도전하기	3.23-4.22(수/금) 14-17시	15	
		41	50+명품강사 도전하기	4.6-5.25(수) 10-13시	20	
		42	전문기관 연계: 귀농산어촌 첫걸음	5.12-5.19(목) 10-12시	20	
		43	전문기관 연계: 2박3일, 귀농산어촌 체험하기	5.25-5.27(수/금) 9-18시	20	
	사회 참여	일· 연계	44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연계: 바리스타 입문	5.26-7.7(목) 10-12시	20
			45	서울시남부기술교육원 연계: 조경관리 입문	5.19-7.14(목) 14-16시	20
			46	역사문화체험 강사 도전하기	4.6-5.18(수/금) 10-13시	20
			47	유튜버로 각워커 도전하기	3.15-4.21(화/목) 10-13시	20
48			디지털 금융강사 도전하기	3.17-4.7(목) 14시-17시	15	
49			다문화 학습지원단 도전하기	3.14-5.9(월) 16시-18시	20	
50			반려견돌봄전문가(펫시터) 도전하기	3.15-4.19(화) 14-16시	20	
자원 봉사 활동		51	50+목소리봉사단 (입문)	3.15-5.3(화) 10-12시	20	
		52	50+목소리봉사단 (심화활동)	4.7-4.28(목) 10-12시	20	
		53	50+책놀이 봉사단 활동하기	3.18-6.10(금) 10-13시	20	
		54	정리수납봉사단 활동하기	3.17-5.19(목) 15-18시	20	
지역 참여 활동		55	다문화 스토리북 취재단 활동하기	3.15-5.17(화) 14-16시	20	
		56	지구를 살리는 숲 돌봄 활동	3.23-4.27(수) 14-18시	20	
		57	나부터 실천하는 기후행동 캠페인	5.9-6.27(월) 14-17시	20	
합계					1,300	

## □ 북부캠퍼스(도봉구 창동 소재)

• 상반기 교육과정 : 39개 과정 / 920명 모집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자기 이해	생애 설계 상담소	1	[생애설계상담소]생애설계와 전직지원: 퇴직자	3.29-4.19(화) 10-12시	15
		2	[생애설계상담소]생애설계와 전직지원: 여성	4.7-4.15(목/금) 10-12시	20
		3	[생애설계상담소]사례로 보는 재무설계	3.30-4.13(화) 10-12시	20
	자기 이해	4	음악테라피, 내가 좋아지는 시간	3.21-5.2(월) 11-13시	12
		5	원예테라피, 마음정원	3.24-4.28(목) 10-12시	20
역량 개발	공통 디지털 역량	6	강사역량 2배 업! 온라인 톨킷	3.17-4.7(목) 10-13시	15
		7	줌Zoom 호스트 기능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기 (3.18)	3.18(금) 14-17시	15
		8	줌Zoom 호스트 기능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기 (3.25)	3.25(금) 14-17시	15
		9	줌Zoom 호스트 기능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기 (4.1)	4.1(금) 14-17시	15
		10	줌Zoom 호스트 기능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기 (4.8)	4.8(금) 14-17시	15
		11	줌Zoom 호스트 기능 제대로 배우고 실습하기 (4.15)	4.15(금) 14-17시	15
		12	스마트 워커로 거듭나기	3.15-4.19(화) 10-13시	20
		13	취업을 위한 컴퓨터 실무역량 기초	3.17-5.26(목) 10-13시	20
	신기술 체험	14	메타버스 탐험대: IFland, 제페토, 게더타운	3.15-4.19(화) 14-16시	15
	미디어 콘텐츠	15	내 방 미디어 작업실 만들기	3.18-5.6(금) 14-17시	20
		16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하기	3.14-5.23(월) 10-13시	20
	소통 역량	17	MZ세대와의 소통 역량 향상 워크숍	3.15-4.19(화) 10-13시	20
	전직 준비	18	(특강)저작권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로 콘텐츠 만들기	3.14(월) 10-13시	50
		19	(특강)중장년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이해	3.15(화) 14-17시	50
		20	(특강)성공 전직을 위한 중장년 채용시장 접근 방법	4.21(목) 14-17시	50
		21	(특강)성공 전직을 위한 중장년 구직 기술	4.28(목) 14-17시	50
		22	(특강)중년 여성을 위한 성공취업 핵심 전략	4.12(화) 14-17시	50
사회 참여	일· 연계	23	NCS 전문면접관 인재풀로 활동하기	3.15-4.19(화) 14-17시	20
		24	디지털 금융강사 도전하기	3.16-4.6(수) 14-17시	15
	1인 비즈니스	25	아이디어 하나로 나에게 맞는 정부 창업 지원 받기	3.29-5.3(화) 14-17시	15
		26	예술놀이 코디네이터 되기: 공깃돌이와 목재퍼즐	3.14-4.11(월) 14-16시	20
	자원	27	어린이 미술사 에듀케이터 입문	3.15-4.19(화) 10-13시	20

대분류	소분류	NO	프로그램명	일정	모집정원 (명)
	봉사 활동	28	북큐레이션 문학도서 입문	3.23-4.27(수) 14-16시	20
		29	전화로 책 읽어주는 활동가 입문	3.23-4.13(수) 13-15시	20
		30	제로웨이스트를 이끄는 자원순환 도슨트 입문	3.15-3.22(화) 10-12시	50
		31	그림책 놀이활동가 입문	3.16-4.6(수) 10-12시	20
		32	치매노인 조호물품 방문전달 자원봉사 활동하기	3.16(수) 10-13시	50
		33	돌봄교실 어린이 독서지원 활동가 양성과정	3.14-4.6(월/수) 15-17시	24
		34	디지털기록지원단 활동하기 2기	3.16-5.4(수) 10-12시	20
		35	디지털평판관리 기술로 사회공헌 활동하기	3.17-5.12(목) 14-17시	20
		36	스피치 실전 훈련으로 낭독녹음 봉사하기	3.14-4.18(월) 14-16시	20
	지역 참여	37	업사이클링 목공 활동가 입문	3.18-5.20(금) 13-16시	12
		38	소잉디자이너 봉사클럽	3.24-4.28(목) 10-13시	12
		39	마을여행 기록활동가 도전하기	3.15-5.17(화) 10-12시	20
합계					900

## II.

## 사회공헌일자리

### ■ 50플러스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 보람일자리 4,534개 제공

-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50세~67세 시민이며, 선발되면 사업별로 6~10개월 동안 매달 52만5천원(57시간 기준)의 활동비 지급
- 장년층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후에도 역량과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 서울시는 2015년 처음 458개의 보람일 자리를 마련해 시행한 이래 매년 규모를 늘려 왔고, 지난 7년간 14,742명의 장년층 시민이 보람일 자리를 통해 인생 전환기를 준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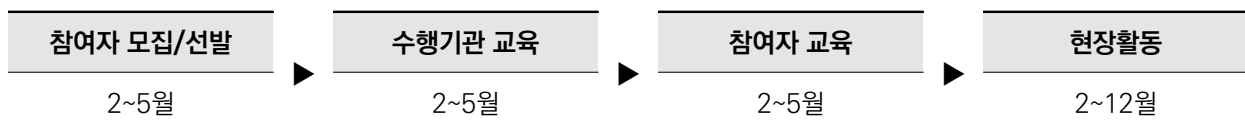
### ■ 차상위계층 은퇴자 400여 명을 우선 선발 (만40세~67세)

- 서울시는 장년층 차상위계층의 자립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기 위해 차상위계층 은퇴자에게 보람일자리 우선 참여 기회 확대

### ■ 보람일자리 참여자는 사업별로 다양한 활동처에서 활동(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시설, 지역아동 센터, 어린이집, 소상공인 지원, 1인가구 지원 등)

- 1인가구의 취업상담과 교육훈련 기관 연계를 돕는 '1인가구 상담헬퍼', 치매어르신 돌봄을 돕는 '치매 길벗잡이', 지역사회내 자원순환을 돕는 '지역자원순환실천단' 등을 새롭게 운영
- 소상공인 업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단' 운영

### ■ 사업 추진 절차



※ 자격, 조건, 지원내용, 참여방법 및 절차는 세부사업별 모집공고문(50plus.or.kr) 참조



붙임

50+보람일자리 세부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공고모집	참여인원(명)			활동기간
				모집	신청	참여	
1	50+컨설턴트	퇴직 전후의 동년배 대상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상담제공	2.10.~2.20	100	304	99	4.4.~12.15.
2	50+학습지원단	개인별 맞춤형 학습설계 및 상담, 교육과정 안내, 사례발굴 등	2.10.~2.20	140	470	137	3.30.~12.15.
3	장애인시설지원단	장애인시설 이용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보조 지원	2.21.~3.3.	223	363	195	4.4.~12.15.
4	최중증장애인 낯활동 지원사업단	최중증 장애인 낯활동 기관 보조인력 지원	2.15.~2.25.	90	144	80	3.28.~12.15.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지원단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평생 교육 지원	2.21.~3.3.	125	275	118	4.4.~12.15.
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단	급식조리 수행기관 조리 보조인력 지원	2.21.~3.3.	130	251	94	4.4.~12.15.
7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생활주책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4.1.~4.11.	19	72	18	5.2.~11.30
8	작은도서관지원단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동 등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성장에 기여	4.7.~4.18.	50	216	60	5.20.~11.30
9	어린이집운영지원단	서울시 생태친화보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급간식 보조 지원	3.14~3.29.	92	183	77	5.2.~11.30
10	어르신돌봄지원단	커뮤니티 케어 체계에서 어르신 돌봄을 지원	3.16.~3.29.	56	172	58	5.2.~11.30
11	50+다문화학습지원단	다문화가정 아동의 기초학습능력 향상과 정서적 지원 제공	3.29.~4.11.	40	73	41	5.2.~12.15
12	도시농부텃밭지원단	학교 및 시설 텃밭관리와 텃밭체험 교육 운영 보조	3.11.~3.23	70	132	78	4.11.~10.31.
13	50+안전산행지원단	안전산행가이드 활동을 통한 안전산행 문화 조성 및 쾌적한 산악활동 지원	3.11.~3.25.	50	145	50	4.25.~11.25.
14	50+빗물관리지원단	빗물의 효율적 지속적 활용을 위한 사후관리 활동 지원	3.24~4.4	21	78	17	5.9.~11.30.
15	1인가구 상담헬퍼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초기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 지원 활동	3.22.~4.4.	50	90	37	5.2.~11.30.
16	50+문화시설지원단	서울시 소재 문화시설의 안내 및 안전 관련 지원 활동	3.4.~3.17.	100	371	100	4.18.~11.18.
17	지역복지사업단 (50+센터)	장애학생학습지원, 장애인직업재활 지원 등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	2.17.~5.16.	800	2,622	1,125	4.1.~12.15.
18	건강형 식사지원단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건강형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인력 지원 활동	6.9.~6.20.	10	37	10	6.27.~12.15.
19	차상위 특화 복지서비스지원단 (예정)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7.13~7.25	100	4	0	8.1~12.15
20	학교안전지원단	초등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점검 및 교내 생활안전지도	6.27~7.14	180	307	0	9.1~12.15
총계			-	2,446	6,309	2,394	-

※ 전체 서울시 보람일자리 34개 사업 중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개 운영(7월 말 현재)

### III.

##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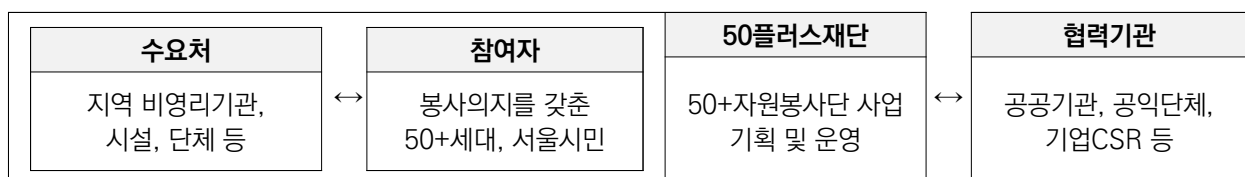
#### ■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900명 규모의 50+자원봉사단 운영

- 지난해 재단에서 실시한 중장년 지원제도 현황조사<sup>1)</sup>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7%
- 재단은 2019년부터 50+세대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을 발굴, 운영했으며 매년 규모를 늘려 지난 3년간 1,521명의 50+세대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

#### ■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취약계층 지원, 세대별 돌봄, 환경 및 지역사회 개선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

- 50플러스캠퍼스 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이 이어지는 연계형과 사업별로 참여자를 별도 모집하는 공모형으로 나누어 총 31개의 사업 운영
- 50플러스캠퍼스 교육과정과 연계한 봉사활동은 ‘다문화가족지원단’ ‘지역생태보호활동가’ ‘발도르프 놀이지원단’ ‘소상공인쇼핑라이브지원단’ 등이 있음
- 사회적 요구와 50+세대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획, 운영하는 공모형 봉사활동은 50+커뮤니티와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중장년 50+가 재능기부형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 밖 선생님’ ‘선배시민멘토단’ ‘도시숲돌봄단’ ‘사이버감시단’ 등 이 있음

#### ■ 사업 운영 구조



1) \*〈서울시 중장년 지원제도 이용 현황, 만족도 및 욕구조사〉 2021, 서울시50플러스재단

붙임

50+자원봉사단 세부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활동처	공고모집	인원	교육기간	활동기간
1	행복한학교박선생님 (정서지원)	지역사회 결식우려아동 대상 정서 지원을 위한 비대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제공	로고스, 울진, 주덕, 동방, 송악, 지역아동센터	5.30~6.29.	57	6.14.~6.17.	7.25.~9.30.
2	다문화 가족지원단	결혼이주여성대상 온라인 한국어 코칭 교육 봉사	협동조합빙고, 더어울림연구소	4.12~4.18.	11	4.26~6.20.	6.14~11.30.
		캄보디아, 이집트 청년대상 온라인 한국어코칭 교육봉사		4.26~5.2.	34	5.16~5.30.	5.16~11.20.
3	선배시민멘토단	자립준비청년 및 돌봄공백 청소년 멘토링 활동	(사북) 엔젤스헤이븐	5.2~5.16.	43	6.14.	5.1~11.30.
4	지역생태보호단	지역 내 생태교란 동식물 모니터링 및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은평구 둘레길 플로깅	생태보전시민모임	4.11.	15	5.24.	6.1~6.30.
5	자전거정비단	지역주민 대상의 자전거 무상 정비 봉사 실시 및 점검 활동	약속의자전거, 서울혁신파크	4.11.	15	6.23.	6.1~7.30.
6	느린학습청소년 지원단	느린학습자 대상 독후활동 진행	(사)피치마켓	6.7~6.17.	30	6.24./7.28. /8.16.	6.24~11.30.
7	발도르프 놀이지원단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종이,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만드는 활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마포, 용산)	4.28~5.17.	15	3.25~5.20.	5.27~8.31.
8	소상공인 사진홍보지원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대상 홍보용 제품사진 촬영 지원	(주)상상우리	5.6~5.22.	23	4.5~5.24.	5.27~8.31.
9	소상공인 쇼핑라이브지원단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대상 쇼핑라이브 지원	(주)상상우리	5.6~5.23.	20	3.16~5.4.	5.11~8.31.
10	치매예방 교육강사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론 교육,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그룹활동 진행	노인종합복지관	5.9~5.16.	8	4.4~5.30.	5.23~7.31.
11	기억친구 말벗지원단	어르신들 대상으로 도구 (화상카드, 그림책)를 활용하여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용산구치매 안심센터	5.30~6.17.	31	8.5/9.2.	7.12~9.15.
12	목공재능나눔단	서울역 쪽방촌에 거주하는 1인가구에 필요한 소가구 제작 지원	서울역시립쪽방 상담소	6.13~6.17.	6	6.20.	6.27.
13	정리수납봉사단	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공간정리 컨설팅	공동종합복지관, 구로노인복지관	4.27~5.6.	20	5.23.	5.30~11.30.
14	목소리봉사단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위한 낭독 및 녹음 봉사	(주)아시아너브, 구로노년장애센터	4.18~5.15.	35	5.17.	5.18~11.30.
15	사이버감시단	온라인상 성매매알선 광고 감시 및 신고	다시함께상담센터	5.9~5.25.	40	6.2~6.3.	-
16	책놀이봉사단	그림책을 통한 유·초등 대상 정서(인성) 및 인지 발달에 기여하는 수업 제공 활동	금천육아종합 지원센터	7.1~8.31.	12	7.8~7.22.	8.4~8.31.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활동처	공고모집	인원	교육기간	활동기간
17	치매노인 조호물품 방문지원단	조호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 (물티슈, 기저귀, 깔개 매트 등) 전달	도봉치매안심센터	4.5~4.11.	16	4.14.	5.2~11.20.
18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지원단	제로웨이스트샵 방문객 대상 자원순환 수거물품 설명, 분류, 재활용제품 소개 등	알맹상점	4.5~4.11.	4	4.14.	5.10~7.31.
19	돌봄교실 독서지원 자원봉사단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관련활동 지원	도봉교육복지센터	4.7~4.13.	4	4.20.	4.26~10.31.
20	그림책 놀이활동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와 독후 활동	도봉가족지원센터	4.7~4.13.	10	4.20.	5.1~11.30.
21	마을여행기록 활동가	동북권 마을여행지 발굴 및 자료 디지털아카이빙	마을아카이브	5.17~5.29.	4	6.10.	6.1~8.31.
22	행복한학교박선생님 (학습지원)	지역사회 결식우려아동 대상 1:1멘토링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지원	(주)SK행복나래	5.30~6.17.	-	7.5~7.6.	8.1~11.30.
23	문화예술공연단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지역복지관	커뮤니티 연계	44	커뮤니티 연계	7.1~10.31.
총계				-	497	-	-

※ 50+자원봉사단 운영(4~11월, 7월 말 현재, 23개 운영, 497명 참여, 활동처 30곳)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